

여성시대

6월
2023



MBC 라디오
매일 아침
09:05~11:00

행복을 찾는 사람들 1
IBK기업은행 진접지점 거래고객
(주)에스피엘 허상오 대표

행복을 찾는 사람들 2
IBK기업은행 춘의테크노지점 거래고객
연세사랑모아여성병원 이홍중 대표



IBK기업은행

거나

나에게 딱맞춘
카드



이름만 보면
혜택을 알 수 있는

I.B.K카드

가나

비즈니스에 최적화된
B카드



저나

남다른 삶을 위한 프리미엄
K카드



04 신춘편집소 시상식

장려상

06 또 하나의 가족

11 엄마, 순옥이, 그 아이

19 3년이 걸린 약속

23 그 아이, 인연

29 코로나 3년 마흔세 살의 졸업생

35 엄마는 술래

43 눈보라 속에서 그 아이와 함께

49 내 가슴에만 사는 그 아이

57 눈이 큰 아이

72 행복을 찾는 사람들1

(주)에스피엘 허상오 대표

76 행복을 찾는 사람들2

연세사랑모아여성병원

이흥중 대표

81 이달의 편지

‘MZ세대 머느리의 소비 철학’ 외

112 양희은의 스튜디오에서

작별과 도전

IBK기업은행 협찬의 월간 여성시대는 작지만 큰 감동을 전하고자 합니다.

매월 10일 IBK기업은행에서 무료로 배포하며, 이웃과 함께 보면 감동이 2배로 늘어납니다.

여성시대

발행일 2023년 6월 10일 발행인 ㈜문화방송 대표이사 안형준

등록번호 라 - 5413 프로듀서 안정민, 이지안

방송 MBC라디오 매일 아침 9:05~11:00 인터넷 주소 www.imbc.com

방송중 열린전화 02-368-1500 문의 02-789-3401 주소 (03925)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267 MBC 라디오 여성시대

편집·제작 하나로에드컴(02-3443-8005) 표지 작가 이콩 월간지(비매품)

전국 주파수 안내(표준FM)

※ 전국 각 지역은 아래 주파수대에서 MBC 라디오 청취가 가능합니다.

서울 95.9 부산 95.9 / 106.5 대구 96.5 광주 93.9 대전 92.5 / 91.3 전주 101.7 / 94.3 창원 98.9

춘천 92.3 / 88.9 청주 107.1 제주 97.9(견월악) / 97.1(삼매봉) 울산 97.5 강릉 96.3 진주 91.1 / 93.5 목포 89.1

여수 100.3 안동 100.1 원주 102.5 / 92.7 충주 96.1 삼척 101.5 / 93.1 포항 100.7 울진 102.7 울릉도 98.5

2023 여성시대 신춘편지쇼

해마다 열리는 여성시대 신춘편지쇼.
올해의 글제는 '3년'과 '그 아이'였습니다.
전국 각지 해외에서 도착한 응모작은 2,900여 통이나 되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거쳐 총 스물한 편의 수상작이 가려졌습니다.



2023년 봄을 더욱 풍성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준
영광의 수상작들을 소개합니다.



2023 여성시대 신춘편지쇼

장려상

또 하나의 가족

이윤형 | 서울 도봉구 도봉로

20년 전 의료기기 전문 업체에서 영업부장으로 일할 때 여러 병원에 다니곤 했습니다.

하루는 모 대학병원 소아과를 지나다가 문이 열려 있는 병실에서 이쁘게 생긴 아이가 저를 보고 손을 흔들기에 저도 손을 흔들어 주고 지나쳤습니다.

며칠 후 또다시 그 병원에 갔을 때 그 아이가 저를 보더니 “아빠!” 하고 부르는 거예요. 저는 ‘옆에 아빠가 있나 보다’ 생각하고 지나쳤는데 아이는 또다시 큰소리로 “아빠!” 하고 저를 불렀습니다. 잠시 걸음을 멈추고 병실로 들어가서 “꼬마야, 나 보고 아빠라고 했니?” 물으니, 아이가 “네” 하더군요. “왜?” 하고 물으니, 꼬마는 “아저씨가 내 아빠 같아서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꼬마야, 너 엄마 아빠가 없

니?” 하고 물어보는데 간호사분이 오셔서 대신 대답하더군요.

“이 아이는 아기 때 엄마가 보육원에 두고 갔어요. 다섯 살인데 소아마비 증세가 있어서 걷지도 못하고 지금 치료 중이에요.”

그 얘길 듣고 순간 미안해서 “꼬마야, 치료 잘 받고 나중에 또 보자” 하고 돌아서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아내에게 그 얘길 하니까 그 아이를 보고 싶다고 하더군요.

다음날 함께 병원에 갔는데 아이가 아내를 보자마자 “엄마!” 하면서 우는 겁니다. 아내는 당황한 듯하더니 그 아이를 품에 안으며 “그래그래” 하면서 같이 울더군요. 그리곤 저를 보고 물었어요.

“여보, 우리가 이 아이 입양할까?”

저는 일단 알아보자, 하고 보육원과 병원에 차례로 알아보니 외국에 이미 입양 신청을 해놔서 국내 입양은 안 된다더군요. 그러면서 보육원 원장님이 외국에 입양될 때까지 위탁을 해보는 건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다만 지금은 소아마비 치료 중이니 한 달 정도 기다렸다가 집으로 데리고 가서 보살펴 달라고 하더군요.

알겠다고 하고 한 달 후 아내와 병원에 갔더니 그 아이는 서 있었고 우리 부부를 보더니 “엄마~ 아빠~” 하면서 잘 걷지는 못해도 두 팔을 벌리고 다가와 안겼습니다. “엄마! 아빠! 나 엄마 아빠 집에 갈래!” 하며 우는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당시 우리 부부에게는 남매가 있었는데 둘 다 대학생이라 아이들도 좋다고 했어요.

우리 집에서 한 달간 그 아이를 돌보면서 저는 그 아이를 다른 아이들처럼 건게 해보자 했습니다. 제가 의료기기를 취급하다 보니 전국 의 병원장과 의사들을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친분이 있는 병



원 원장님과 소아과 전문 의사들에게 사실을 말하니 마침 의사 한 분이 은퇴하고 지방에서 아이들 돌보는 일을 하고 계셨는데 그 아이를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찾아가 진단받아 보니 두 달 정도 치료하면 뛰지는 못해도 뒹뒹 똥 걸을 수는 있겠다고 해서 치료비는 저희가 다 부담을 할 테니 제발 고쳐 달라고 부탁했어요.

병원에 입원시키고 치료가 끝날 때까지 아내가 곁에서 돌보기로 하고 저희는 주말 부부가 되었습니다. 저 역시 토요일이면 병원에 가서 아이를 돌봐줬죠.

그리고 두 달 후 아이는 정말 걷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아이를 부둥켜안고 좋아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는데 그 아이가 “엄마 아빠, 고맙습니다” 하는 거예요.

저는 노 의사분께 감사드리고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와 친자 식처럼 돌봤습니다.

두 달 후 보육원 원장님께서 집에 오셔서 치료도 해주고 잘 돌봐줘서 고맙다고 하시며 아이가 곧 호주로 입양될 거니까 너무 많은 정을 주지 말라고 그게 아이를 위한 거라고 하더군요.

알겠다고 했지만 우리 가족은 그 아이를 어떻게 보내냐면서 입양 되는 날까지 밤마다 울고불고했습니다.

며칠 후 아이가 호주로 떠나던 날 발버둥을 치면서 “엄마! 아빠! 나 여기서 살 거야~ 나 안가~” 하면서 우는 아이를 소리 없이 가슴으로 흐르는 눈물을 뒤로하고 보내야 했어요.

아내는 그 후로도 한참 동안 식음을 멀리하고 며칠을 가슴을 치며 울더니 어느 날 문득 “여보, 이제 그만... 그 아이를 위해 잊자” 하더군요.

그리고 15년간 잊고 살았는데 어느 날 호주에서 영상 통화가 걸려 왔습니다. 컴퓨터를 켜서 전화를 받으니 그 아이가 어느새 아가씨가 되어 저를 보며 “아빠!” 하는 거예요. 반가움에 아내와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아이는 아내와 아이들을 보더니 “엄마! 아빠! 언니! 오빠!” 하면서 울더군요.

“저요. 이제는 뭘 수도 있고, 지금은 대학생이고, 호주 부모님이 치

료를 잘 받게 해줘서 지금은 장애인이 아닌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 말에 우리 가족 모두 부둥켜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의 친부모 친자매는 한국에 계신 엄마 아빠 언니 오빠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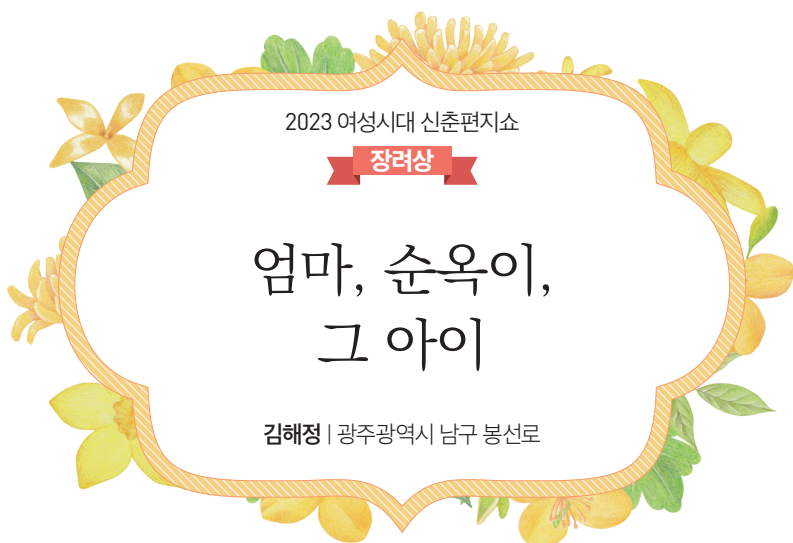
그러면서 아이도 우는 거예요.

어떻게 15년이나 지났는데 우리를 기억하냐고 했더니 호주 양부모가 그 아이를 데리고 가면서 우리 가족 사진을 달라고 해서 줬던 기억이 납니다. 양부모님은 호주 그 아이 방에 사진을 액자에 담아 걸어 두고 시간이 날 때마다 이 가족이 너의 친부모는 아니지만 너를 곁을 수 있게 해주신 분들이라고 자주 이야기해 줬다더군요. 그 말을 들은 아이는 친부모를 찾을 생각은 하지 않고 우리 가족이 자신의 친가족이라고 생각했답니다.

영상 통화가 끝나기 전 아이는 “대학원까지 공부하고 한국 서울에 갈 거예요. 지금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랑 대한민국에 갈 테니 만나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하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다 “안녕” 하고 영상이 끊어졌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 얼굴이 눈물바다가 되었고 가슴이 먹먹하더라고요. 그 후로 저와 아내는 모든 지인을 동원해서 그 아이 친모를 찾아봤는데 생사도 모르겠고 찾을 수가 없었어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 아이가 대한민국 서울에 우리 가족을 만나러 온다는데 친모도 아니고 친가족도 아닌데 그 아이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제대로 한 것도 없는데... 그래도 그 아이가 보고 싶음에 기다려줍니다. 그 아이와 다시 만날 그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초 점 잃은 눈은 더 이상 반가움도 그리움도 담아내지 못하고 나의 마음을 아리게 하며 텅 빈 눈동자로 나를 바라보고 있다.

“엄마, 내가 누구야~ 나 알아보겠어? 내 이름 한 번만 불러줘 봐.”

한참 동안 나를 바라보던 엄마의 입술이 힘겹게 들쭉이며 “막내... 내 막내”라고 작게 흔들리며 소리 낸다. 마른 낙엽처럼 바스라질 듯 앙상해진 엄마에게서 듣는 그 한마디에 눈물이 맺히고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고 올라오는 것을 느끼며 애써 웃어 보인다.

“맞아. 엄마! 나 엄마 막내 해정이. 나 안 잊어줘서 고마워 잉~”

“내가 앉은 자리에서 천 리를 봐야. 척하든 척이여~”라며 자신의 총명함을 뽐내시던 나의 엄마는 몇 년 사이 급격히 모든 기능을 상실해 가며 눈앞에 와 있는 자식의 이름조차 한참을 생각해내야 겨우 떠올

릴 수 있는 중증치매 노인의 모습이 되어 있다.

엄마는 2016년 대장암 3기 수술 후 병원에서도 놀랄 만큼 빠른 회복세를 보였지만 여든 살의 노구로 건디기 힘든 항암 치료가 기다리고 있었고 지난한 병마와의 싸움이 쉬이 끝날 일이 아니었기에 육 남매가 순번을 정해 엄마의 간병을 하기로 했다.

하지만 4명의 언니와 오빠는 늘 바쁘다는 핑계와 까탈스러운 엄마의 요구에 맞춰 드리는 게 너무 힘들다며 자신들의 순번에도 나를 부르기 일쑤였고 엄마 또한 나이 서른아홉에 힘들게 낳은 막내딸이 가장 임의롭다며 나만 찾으셨다.

서른넷 늦은 나이에 결혼해 당시 겨우 초등학교 2학년과 유치원생을 둔 나는 주부와 간병인 두 가지의 역할에 지치기도 하고 형제들에 대해 원망도 하며 엄마의 곁을 지켰다. 두 아이 등교와 등원을 시키고 혈레벌떡 엄마가 누워 계신 병원에 들어서면 왜 이제야 왔냐는 듯 잔뜩 찌푸린 얼굴의 엄마는 늘 나를 보면 첫마디가 씻겨달라는 말솜이었다. 처녀 적 친정에서 곱게 커야 시집가서도 곱게 산다고 딸들에게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하며 자식들을 위해 희생만 하셨던 엄마는 보기에 도 아깝다며 이빠하던 막내딸에게 떼쓰는 어린아이의 모습이 되어 있었다.

“아빠~ 어제 작은언니 왔을 때 씻겨주라고 하제. 엄마는 꼭 나만 보든 씻겨 주라고 하요.”

“너 아니든 맘에 들들 안 한디 어찌겠냐. 니가 씻겨줘야 딱 내 맘에 든당게.”

“하여간 까탈시러와. 이런께 언니들이 다 혀를 내 두르제. 강 씻겨주든 고맙습니다~ 해.”

“씩을 것들! 내가 그라고 깨끗하니 말강물 똑똑 떨어지게 키워 냈드

만 인자는 그것이 까탈스러운 것이 되부렀다냐?”

휠체어에 앉은 고목 같은 엄마의 몸 구석구석을 씻겨드리고 유난히도 앞이마가 이쁜 엄마의 머리를 감겨 드린 후 새 환자복으로 갈아입혀 드리고 나면 내 얼굴과 몸은 땀범벅이 되고 엄마의 얼굴엔 아이 같은 환한 미소가 번졌다.

치로나 검사 일정으로 호출하는 일이 없을 땐 병실에 앉아 모녀는 지나간 시간을 이야기하며 웃기도 울기도 하며 한가한 오후를 보냈고 나는 엄마와 있으면 안 쓰던 사투리도 부러 더 많이 했다.

“엄마, 엄마 어렸을 때 외할아버지가 겁나 부자였담서? 엄마는 앞이마가 톱 튀어나와 이쁜 것이 부모 복이 많았는 갑써. 난 요봐봐. 이마도 좁고 납작하잖애.”

팔십 노인의 눈은 마치 개구지고 재미난 일을 발견한 어린아이처럼 반짝거리며 어느새 1950년경 강진의 어느 산골 넓은 기와집 마당에 가 있는 듯했다.

“말도 마라. 그 근동에서 느그 외할아버지가 톱톡하고 수완 좋기로 소문났었제. 유복자로 태어나셔서 일본으로 징용까지 끌려갔다 오셨는디. 거 머시냐 나락 껍질 벗겨주는 거.”

“정미소?”

“응. 그런 거를 해갖고 돈을 많이도 벌었제. 집에 일하는 일꾼들도 많았을게.”

“아따 울 엄마 인기 좋았겠네. 부잣집 큰딸이고 인물도 좋고.”

“내가 뭐 인물이 좋다냐.”

엄마의 빛나던 눈빛이 잠시 허공으로 떨어지더니 “내 위로 언니 하나가 있었는데 열여섯인가 일곱인가 되던 해에 맨날 며칠을 불덩이같이 열이 나고 아파 누워 있드만 그길로 못 일어나고 떠났어. 뭐 병인

줄도 모르고 자식 잃은 부모 맘은 오죽할까 싶을게 눈치만 보느라 물어 보도 못 하고 허망하니 보냈제. 그 언니가 참말로 이뻐야. 너무 이쁜 게 빨리 데려가서 부렸능가. 그리고 나서 내가 첫째가 되 붓제. 지금 생각해도 아까워 너무 아까워.”

그동안 전혀 모르고 있던 갑작스러운 말에 어찌할 바 몰라 허둥대던 내 입술은 실없는 소리를 하기 시작했다.

“오메 그러든 엄마가 원래 첫째가 아녔어? 이제껏 그런 큰일을 말도 안 하고 해남 윤씨 부자집 큰딸인 척 유세했구먼! 우리 윤순옥 씨 겁나 엉큼하네.”

“뭐 좋은 일이라고 자식들한테 말하것냐.”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이내 엄마는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갔다.

“그때는 딸들을 학교도 안 보내던 시절인디 그래도 느그 외할아버지가 인자 딸들도 배워야 쓴다고, 배워서 글도 읽고 쓰고 해야 된다고 나를 국민학교도 보내주고 중학교도 보내주고 안 했냐. 근디 언니 그렇게 되고 아버지가 떠난 자식 잊으려고 그랬능가. 맨 광주로 목포로 땡기니라 집에 붙어 있들 안 허실 때 뭘 맘이 들었는가 느그 외할머니가 뜬금없이 나 보고 학교를 그만두라 그래야. 가시내가 더 배워서 뭐 하냐고 글 쓰고 셈할 줄 알든 됐다고 집에서 살림이나 하다 시집이나 가라고 헌디. 오메 청천벽력 같드만.”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자신의 유년 시절을 쏟아내던 엄마는 입이 마르셨는지 요구르트에 꽂힌 빨대를 한 모금 쭉 빨아 드시더니 이야기를 이어갔다.

“내가 공부를 잘했시아.”

“그러제. 누가 봐도 엄마가 똑똑허니 생겼어. 그렇게 순옥 씨 자식들도 다 똑똑하잖애.”



“나 다니던 도암 중학교 선생님이 집에까지 찾아와서 순옥이가 똑 똑하고 웬만한 머슴매들보다 공부를 잘한다고 사정했는디 어머니가 끝까지 모른 척 하드라고. 배롱나무꽃이 세 번 피고 지른 쌀밥을 먹는다고 했는디 그때가 그해 배롱꽃이 처음 폈을 때였어. 마당에 배롱꽃이 얼마나 이쁘게 폈든가. 그 꽃 봄서 많이도 울었제. 그때 내가 느그 외할머니 독한 줄을 처음 알았어야. 그라고 울고불고 매달려도 안 보내 주더라고.”

“외할머니는 왜 그랬대. 이모랑 외삼촌들은 다 고등학교까지 보내 주고. 나쁘네 나빠.”

얼굴도 희미한 외할머니 이야기에 연신 맞장구를 치며 자신의 깡마르고 거친 손에 로션을 바르고 있는 막내딸을 물끄러미 쳐다보던 엄마는 “근디 어쩐다냐. 니가 그 나쁜 외할머니랑 똑 닮았는디. 김막례 씨랑 한뿐이여~”라며 빙그시 웃으셨다.

“옴마! 그래서 내 이쁜 이름 놔두고 막례랑 비슷한 막내야 막내야~

하고 불렀구먼~.”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난 그 배롱나무 꽃말이 ‘부귀’와 ‘떠나간 벼를 그리워함’이라는 것을 알았다. 엄마는 꽃말을 몰랐겠지만 그 꽃을 보며 먼 곳으로 떠나간 언니도, 다시는 교정에서 볼 수 없는 벼들도 영영 멀어진 소녀의 꿈도 그리워했겠지.

그렇게 중학교를 중도에 그만두고 혹여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을까 봐 교과서 몇 권을 신줏단지 모시듯 몰래 품고 있던 그 아이는 몇 해 지나지 않아 채 스물도 되기 전 친척의 소개로 당시 대학까지 나온 흰칠한 인물의 남자와 얼굴 한 번 보지 못하고 주변 마을이 떠들썩한 혼례를 치렀다고 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에게 과분한 남자라 여기며 현모양처를 꿈꾸던 어린 새색시에게 감당하기 힘든 불행이 연이어 계속됐다. 거듭된 사업 실패, 바람, 도박, 알코올중독. 남자로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다 했던 남편 덕에 육 남매를 키우고 뒷바라지하는 것은 오롯이 엄마의 몫이었고 내 기억 속 엄마는 늘 자식들 도시락 싸줄 쌀과 학교에 내야 하는 공납금을 걱정하며 함바집부터 남의 집 허드렛일까지 돈만 된다면 무엇이든 마다치 않고 새벽부터 밤늦도록 일만 하는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엄마’였었다.

8년의 항암 치료를 하며 엄마의 몸과 마음은 말할 수 없이 쇠락해갔다. 엄마가 우울해하거나 전에 없는 짜증과 불편한 모습을 보이시는 것을 자식들은 그저 항암 후유증으로만 여기며 치매가 중증에 이르도록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치매 진단을 받고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언제 죽을지 모르니 혼자 지내는 것이 두렵다며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 달라고 하셨다.

엄마는 오십이 갓 넘은 나이에 사별하고 여섯이나 되는 자녀를 홀

로 키워 그들이 자신의 인생에 훈장이라도 되는 듯 자랑스러워하며 어딜 가나 그 여섯 개의 훈장을 병풍처럼 두르고 다니셨지만 6명씩이나 되는 자식들은 혼자서 죽음을 맞이할까 두렵다는 병든 노모 1명을 아무도 모실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2020년 1월 코로나가 막 기승을 부리기 직전 엄마는 요양원에 입소 하셨다. 코로나로 인해 요양원은 격리시설이 되어 외출은 전혀 허락되지 않았고 면회 또한 아주 가끔 가능했다. 그동안 엄마의 치매는 급격히 심해졌고 가끔은 내 얼굴도 못 알아보고 내 이름을 기억해 내는 데도 꽤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말할 수 없이 가슴 아픈 지경에 이르렀다.

지난해 가을 그해 마지막 배롱나무꽃이 흐드러지게 핀 어느 날 엄마를 찾았다. 엄마의 컨디션에 따라 반응이 조금씩 다르긴 하셨지만 그날따라 눈만 깜벅거리며 쳐다만 보고 말씀을 안 하셨다.

“엄마, 막내 왔어. 나 누구야? 엄마 막내지?”

아무리 엄마의 흐트러진 정신을 모아 보려 해도 모일 기미가 보이질 않았다.

“엄마가 나 보고 외할머니 닮았다고 했잖아. 김막레 씨랑 똑같다고 했잖아.”

그 순간 흐렸던 엄마의 눈이 나를 응시하며 무언가 떠오른 듯 입을 열더니 “엄마, 왜 나 중학교 안 보내줬는가. 왜 안 보내줬어” 전혀 예상치 못한 말이 파리한 입술을 타고 내 귀를 때리는 듯 강렬하게 들렸다. 힘없는 목소리지만 또렷한 그 말에 나도 모르게 울격하며 눈물이 났다. 그리고 나 또한 예상치 못한 말로 응대하고 있었다.

“순옥아, 미안해. 엄마가 겁나 미안해.”

어느새 내 손은 엄마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을 이어갔다.

“우리 순옥이 맘 풀릴 때까지 백 번이고 천 번이고 사과할게.”

“엄마가 나 중학교도 대학교도 보내줬으면 내가 이려고 안 살 거 아녀.”

“잘못했어. 엄마가 참말로 잘못했어.”

난 엄마의 엄마 김막례 씨가 되어 있었고 엄마는 김막례 씨의 어린 딸이 되어 우린 같이 눈물을 흘렸다. 늦었지만 치매에 걸린 엄마에 대해 이해해 보려고 요양보호사 자격증 공부를 하며 치매는 가장 가까운 기억부터 잃어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의 엄마 우리 육 남매의 엄마는 이제 누구의 엄마도 아닌 학교 선생님이 되어 품금 치며 아이들과 노래 부르는 것이 꿈이었던 그 아이, 학교에 가고 싶어 헤진 교과서를 품고 남몰래 눈물 훔치던 그 아이, 꽃다운 언니의 죽음이 자기 잘못도 아닌데 숨죽여 울며 그리워하던 그 아이 소녀 순옥이가 되어 있었다.

이후로 난 늦은 나이에 낡아 늘 미안해하고 예뻐하던 엄마의 가느다란 모성애의 마지막 한줄기를 붙잡고 있는 막내딸이 되기도 하고 자신의 어린 시절 원망과 사랑이 뒤섞인 엄마의 엄마 김막례가 되기도 한다.

짧은 시간 흐드러지게 피었다가 눈꽃처럼 사라질 벚꽃이 만발했다. 저 찬란하게 아름다운 벚꽃을 보면서 나는 어린 순옥이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백 일 동안 피고 지며 눈물도 웃음도 함께했을 그 아이를 닮은 수줍게 핀 배롱나무꽃이 기다려진다. 그 아름다운 배롱꽃이 핀 어느 날 난 나의 엄마이자 자신의 어린 시절로 타임머신을 타고 떠나버린 그 아이를 만나러 갈 것이다. 처음부터 나의 엄마로만 존재하는 줄 알았지만 꿈 많은 단발머리 소녀였고 누군가에게 가슴도 설레었을 것을 너무 늦게서야 알게 된 사랑스러운 그 아이를 만나러 갈 것이다.

2023 여성시대 신춘편지쇼

장려상

3년이 걸린 약속

김성선 | 경북 고령군

19 70년 마을과 떨어진 외딴집에서 우렁찬 소리를 내며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는 아장아장 걸어야 할 때가 지나도 당최 일어서질 못하더라고요. 엄마는 그런 자식을 업고 유명하다는 의원은 다 다녔지요. 시간이 흐르고 저는 ‘장애인’이라는 이름표를 덜컥 달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언제나 제 곁엔 친구들이 있었고 잘 웃는 복을 타고나서 장애로 인해 슬펐던 적은 없었어요. 지금도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 저절로 미소가 납니다. 장애가 있다고 방에만 있는 성격은 아니어서 스스로 많은 것을 익히고 배우려고 했어요.

20대가 되던 해, 친구 한 명이 일본으로 유학을 가게 됐어요. 친구에게 전화는 하고 싶은데 일본어로 바뀐 달라는 말을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드라마나 예능을 통해 일본 문화를 머리에 익히면서 방송통신대 일본어 기초반에 등록해 일본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일본말로 대화할 사람이 없어 눈으로 일본 방송을 보는 정도에 멈췄지만 ‘내 친구 좀 바꿔줘’ 같은 기본 어휘는 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 후 우리나라에 컴퓨터가 막 들어오던 때 중고 286 컴퓨터를 구매해서 혼자 하드웨어를 해체하고 붙이기를 반복하며 컴퓨터와 친해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쇼핑몰 홈페이지 제작도 하면서 용돈 벌고, 원격으로 제가 친구 회사에 접속해 오류도 잡아줬어요.

잘 나가던 지난날은 어느덧 제 나이 사십이 되고 몸이 굳기 시작하면서 정말 지나버린 날이 되었습니다. 저의 장애 유형은 근육병. 희귀 난치성 병으로 온몸의 근육이 굳어가는 병이랍니다. 엉덩이로 기어 다니다가 바닥을 길 수조차 없게 되고 손가락도 들 수 없게 되자 저는 근육병이란 걸 제대로 실감하게 되었죠.

하느님도 너무 하시지. 장애인으로 있는 것도 샘이 나셨나. 이렇게 까지 몸을 뽕뽕 묶으시나 싶어 울기도 하고 원망도 했는데 그런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긍정적인 마음을 타고 난 탓에 한동안 죽을까도 생각하다가 그것도 시들해져 다시 ‘그래 이렇게라도 살아보자’ 다짐했습니다. 마음을 다잡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어요.

“성선 씨, 시조창 한 번 해봐요. 내가 가르쳐줄게.”

선물같이 찾아온 시조창 선생님과의 인연. 시조창 전국 대회에 출전해 딱하니 대상, 금상까지 받고 말았습니다.

의기양양해진 것도 잠시 그때부터였을 겁니다. 옆구리가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아팠고 송곳 100개가 온몸을 찌르는 듯한 고통이 찾아온 것이. 계속 미련하게 아픔을 참았더니 호흡이 불가해져 대학병

원으로 실려 갔습니다. 검사했더니 탁구공만한 담석이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중증장애인이라 수술은 못 해주겠답니다.

“수술을 할 수 있는데 8~90% 마취에서 못 깨어나실 겁니다. 그래도 원하시면 해드릴 순 있습니다.”

의사의 말에 동요한 오빠는 동생을 잃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수술을 포기하고 저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렇게 진통제를 먹으며 3개월가량 견뎠을까요. 저는 또 한 번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정신도 없이 실려 간 병원. 코로나19로 보호자는 한 명만 허락되던 시기. 응급실에 가자마자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감염 여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진통제를 맞으며 기다려야 했습니다. 몇 달 사이에 의사가 바뀌어 있던군요.

“일단 복강경으로 시도해 보고 안 되면 수술하죠. 할 수 있는 방법을 전부 동원해 환자를 살릴 테니 나 하고 약속 하나 합시다. 마취에서 깨는 순간부터 호흡기 운동을 해주셔야 합니다. 폐가 터져도 좋으니 입에서 기계를 떼지 말고 죽을 각오로 호흡하세요. 그래야 내가 당신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죠?”

의사의 말은 이러했습니다. 비장애인들은 수술 직후에 폐를 살리기 위해서 걸어 다니라고 하는데 움직일 수 없는 나는 호흡으로 마취 때문에 죽어 있는 폐를 깨우라는 것.

“네, 꼭 그렇게 할게요.”

다행히 수술은 면하고 성공적으로 담낭을 제거했습니다. 그동안 손과 발이 되어 6년을 같이 해온 활동보조인, 내가 예쁜 동생이라고 부르는 내 동생이 밖에 나갔다가 활짝 핀 벚꽃을 찍어왔더라고요.

“언니야, 얼른 나아서 내년에는 벚꽃 구경 가자.”

동생 눈가에 눈물이 축축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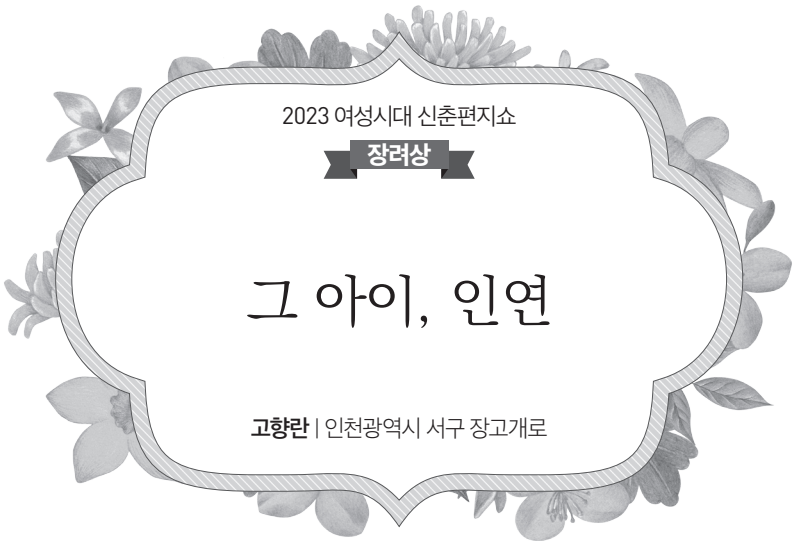
“그래. 우리 꼭 내년에는 벚꽃 구경도 가고 쭈크도 캐자.”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퇴원 후 무슨 이유인지 저는 앓을 수가 없었어요. 척추가 너무 아파서 앓을 수가 없었고 누워서 먹고 자고 싸고, 6개월이 지나면 나을 줄 알았는데 비장애인들은 원래 회복이 더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견뎌했습니다. 하반신에 감각이 없어져도 이 또한 낫는 과정인 줄로만 알았어요. 시간이 흐르고 저는 변하지 않는 상황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최근 두 달 전부터 허리에 힘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다. 앉아서 내 손으로 차 한 모금을 넘겼을 때 눈물이 확 쏟아졌어요. 그 옆에서 내 눈물을 닦아주며 같이 우는 동생, 고마워. 하반신 마비지만 앓을 수 있다는 것에 만족하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2023년 4월 1일 우리는 벚꽃 구경을 갑니다. 3년이 걸려버린 약속. 지금 우리는 꽃구경 갈 준비로 설레어 있어요.

“동생아, 벚꽃 구경 가자!”



우리 가족이 그 아이와 인연을 맺은 지 벌써 9년이 지나고 있다. 2015년 추석을 앞둔 어느 날 보육원에 봉사활동을 다니던 큰 딸이 명절 때 아이를 데려와도 되겠냐고 물어왔다. 많은 아이가 후원자들과 집으로 가는데 한 아이는 데리고 갈 사람이 없다는 것이었다. 우리 가족은 별 이견 없이 찬성했고 오히려 아이가 오는 날을 기다렸다. 육아를 해본 지 오래됐지만 잘 보살펴 주다 귀소시키면 되겠지 싶었다.

며칠 후 강보에 싸여 아이가 우리 집으로 왔다. 생후 4개월쯤 되는 아이의 맑은 눈과 아직 자라지 않은 머리카락, 고사리 같은 손, 새삼 모든 것이 신비스럽고 예쁘고 행복했다. 아기가 눈동자만 굴리는 모습만 봐도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었다.

보육원에서 보내온 우유를 다 먹이고 트림시키고 약간에 감기 기운이 있는 아이에게 약을 먹이고 난 후 기저귀를 갈아주려고 벗긴 순간, 얼마나 놀라고 가슴이 아팠는지. 엉덩이가 짓무르고 혈어서 별정계 달아올라 있었다. 깨끗한 것으로 갈아입히려 하니 아이가 자지러지게 울었다.

많은 아이를 보육 선생님 두 분과 가끔 찾아오는 봉사자들이 모두 돌봐야 하고 기증품도 부족하다 보니 어쩔 수 없었을 거라는 큰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속상하고 안쓰러운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다.

데리고 있는 동안 치료를 해서 보내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약국으로 달려가 유아용 파우더와 연고 등을 사 가지고 와서 매일 두 번씩 씻기고 약을 발라주었고 약이 스며들 동안 기저귀를 빼고 놀게 했다. 그 때문일까. 원으로 다시 데려다주던 날, 거짓말처럼 아이의 엉덩이는 뽕송뽕송해졌다.

아이 속옷 몇 벌과 남편이 기증하겠다고 산 기저귀 몇 묶음을 들고 수녀원을 방문했다. 보육교사 품으로 아이를 인계하는데 아이가 내 손가락을 꼭 잡고 있었다.

‘뜨거운 전율이 이런 것인가?’

바로 큰딸에게 봉사활동 절차를 묻고 수녀님이 계신 곳으로 향했다. 그리고 삼사일 후부터 그곳에 가곤 했다.

아이가 말을 하기 시작할 무렵, 우리는 아이에게 가르쳐서는 안 될 단어가 있음에 가슴 아프고 안타까웠다. 그건 바로 엄마 아빠. 아이에게 나는 ‘이모’ 남편은 ‘삼촌’ 두 딸에게는 ‘누나’라는 호칭을 쓰게 했다. 아이가 자라면서 상처받지 않게 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 냉혹한 현실이 마음을 짓눌렀지만 도리가 없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아이가 4살 되던 해, 며칠 우리 집에 머무르

면서 남편이 만들어 놓은 텃밭에 물을 뿌리며 놀기도 하고, 놀이공원 동물원 등에 함께 가기도 했다. 마당에 텐트를 치고 점심을 먹던 중 아이가 말했다.

“어머니, 잘 먹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한동안 말을 잃었다.

“그... 그래! 우리 아이~ 많이 컸네~ 많이 먹어~”라는 남편의 응대가 없었다면 딸들과 나는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고 있었을 것이다.

귀소하기로 한 날 아침, 아이의 짐을 챙기고 있는데 아이가 물었다.

“개나리반, 안 가고 싶다. 안 가면 안 돼요?”

선뜻 대답을 못하고 “왜? 언제 가려고?”라고 물으니 “하룻밤만 더 자고요”라고 아이는 말했다. 결혼해서 두 딸을 잘 키웠고, 사회생활도 열심히 해오면서 봉사활동이라는 것에 막연한 관심은 있었지만 현실 감 있게 다가온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담당 수녀님과 상담하고, 둘째 딸도 소정의 교육을 받은 후 본격적으로 봉사를 시작했다. 주말 오후엔 봉사자들이 적어서 보육교사님들의 수고가 더 많다는 얘기에 매주 토요일 오후로 시간을 정했고 둘째는 일요일 오후로 정했다.

활동을 마치고 집에 오면 남편에게 늘 “오늘은 그 아이가 어찌더라, 날 보고 어찌했다” 이야기를 해줬다.

시간이 흐르고 아이는 조금씩 자라 영유아 방에서 조금 큰 아이들이 기숙하는 방으로 옮겨갔고 나와 딸들은 영유아 봉사를 마치고 그 아이가 있는 곳으로 가서 아이를 꼭 안아 주고 오는 게 또 하나의 행복이었다.

명절 때 연휴가 겹치는 날이면 우리 집으로 데리고 와서 함께 지냈고 연휴가 끝나면 모두가 출근해야 하기에 아이에게 개나리반으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느라 진땀을 뺐다. 아이는 그래도 막무가내였다. 한 번은 하는 수 없이 수녀님께 전화를 드리고 하루 더 재웠는데 집에 나와 누나들이 없어서인지 아이는 집에 있던 남편과 함께 알아서 일어나 씻고 본인이 먹고 싶은 거 챙겨 먹고 원에서 헤어질 때도 점잖게 “삼촌, 고맙습니다” 인사하고 헤어지더라.

아이 는 그렇게 우리와의 인연을 겹겹이 쌓아가며 조금씩 커가고 있

었다.

5월 31일, 그날은 아이의 다섯 번째 생일이었다. 우리 가족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달받았다. 보육원에 영유아들이 너무 많이 입소해서 시설 공간이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오류 세 아이들을 다른 시설로 옮기게 됐다는 것이었다. 더군다나 어느 곳으로 가게 될지는 후원자들에게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

그때 느꼈던 우리 가족의 허탈함과 아쉬움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어쩌면 그 아이를 다시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안타까움에 수녀원에 갈 때마다 선생님들께 소심한 항의도 해보았지만 원칙상 어쩔 수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그러나 인연이 그리 쉽게 끊어질까. 몇 개월 후 우린 그 아이가 옮겨간 시설을 알게 됐고 다행히 우리 집과도 가까워서 만나러 갈 약속을 잡았다.

옮겨간 곳에서 첫 만남. 아이는 우리를 잠시 피하다가 남편이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삼촌 잊었어? 이리 와” 손짓하니깐 멍뭇뭇 다가와 남편 품에 안기며 말했다.

“이젠 절대 이사 안 가요. 여기서만 살 거예요.”

소심한 면이 있는 아이라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을 것이고 낯가림도 있어서 더 많이 힘들었을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해 왔다.

남편은 매주 통화를 하기로 약속했고 우리도 한 달에 한 번은 찾아오마고 약속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코로나19라는 치명적 감염병이 창궐하여 그나마 약속도 지키질 못했다. 철저한 방역과 사회적 거리 두기로 우린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다. 대신 전화로 아이의 안부를 확인하고 선생님

의 배려로 사진을 전송받아 보곤 했다.

2022년, 그 아이는 초등학생이 되었고 적극적이고 활동적이며 학업 열이 뛰어나다는 담임선생님의 전언을 들으며 위안을 삼았다.

남편은 통화로 우리 식구들의 이름을 각인시키고 있다며 녹음한 부분을 들려주기도 했다.

“잘 지내지? 삼촌 이름은 뭐지?”

“황승용.”

“잘했어. 이모 이름은?”

“고향란.”

“그럼 누나는?”

“작은누나 혜빈, 큰누나 혜림.”

“역시 우리 아이 똑똑하네! 다음 주에 또 전화할게. 잘 지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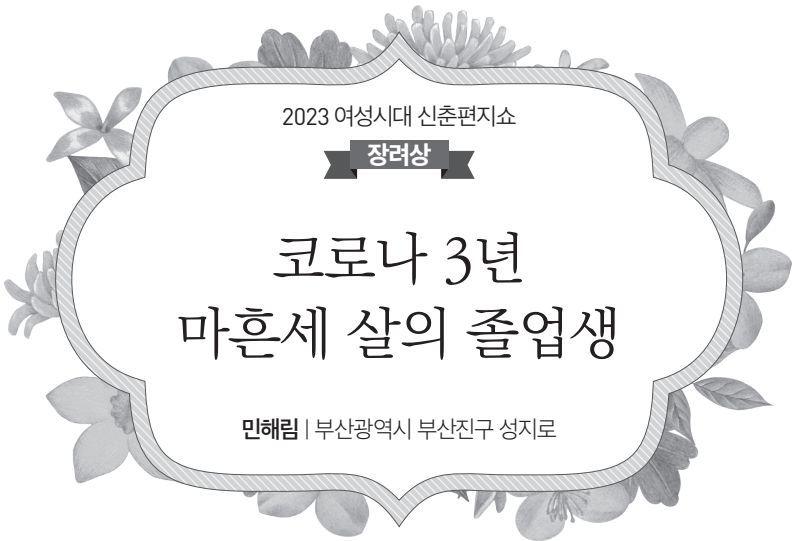
“네~.”

2023년 아이는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다. 이젠 자신이 형아가 됐다.

코로나도 거의 종식되었고 생일도 다가오니 오랜만에 재회를 기다리게 된다. 아직 외박은 안 된다고 하니 원에서 함께 의미 있게 보낼 계획을 설계해 본다. 남편과 딸들, 2020년에 생긴 큰 사위도 함께하겠단다.

우연처럼 우리 가족과 인연을 맺은 아이. 너로 인하여 우리 가족 모두의 생활 패턴이 변했고 작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되었다. 이 모든 게 다 너와의 인연 덕이다.

건강하고 성실하게 자라서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 너의 삶을 사는 그날까지 항상 응원하며 널 묵묵히 아끼고 사랑하고 지원할게. 올바른고 아름답게 성장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마스크 위로 눈물이 뚝뚝 떨어지며 나도 모르는 사이 마스크가 축축해졌고 검정 마스크 위에 눈물자국이 생겼다. 나의 5년, 그 종지부를 찍는 날이 왔다.

코로나19가 시작되며 병원 오가기도 조심스러운 날들이었다. 방송에는 매일 매일 기저질환자들은 특히 조심해라, 마스크도 뚫고 들어와 감염이 될 수 있다, 에어컨 바람이 문제다. 이런 말들 때문에 진료가 미루고 미루어졌다. 그래서 담당 교수님을 만나 완치라는 말을 듣는 게 너무 어려웠다.

나는 암 환우였다.

서른다섯 살 자궁내막암이란 병명의 환우가 되었으며 그때의 나는 많은 것을 놓아야 했고 또 많은 것을 마음 깊숙이 안고 가야 했다.

잃은 것 중 가장 큰 것은 아이에 대한 희망을 다시는 꿈도 꿀 수 없게 된 것이다.

결혼한 지 5년 차인 우리 부부 사이에는 아이가 없었다. 수술과 치료를 해보기도 전에 포기해야 했다. 당장 내가 아프고 죽을 판이니 포기밖에 답이 없었다.

그 정해진 답안지를 내기가 어찌나 힘들던지 아직도 나는 그날 진료실의 소독약 냄새 대기실 환우들의 소리 신랑의 숨소리 말소리 하나까지 잊을 수가 없다.

나만 생각하며 살자. 내가 해야 할 일에만 집중하자. 그렇게 다짐하며 치료에만 몰두했지만 치료받으며 느슨해진 시간과 항암 치료를 하며 오는 변화에 충격과 잡생각들이 많아졌다.

그 무렵 어지러움을 동반한 마음의 병도 찾아왔다. 불안장애 판정도 받았다. 그렇게 신경안정제와 어지럼증을 완화해 주는 약이 생활 필수품이 되었다.

완치 판정을 받던 한없이 기쁘기만 해야 할 날은 절대 벗어나 안 되는 마스크 덕에 숨이 턱턱 막혔고 흘러내리는 눈물에 축축하고 찻찻함만이 기억나는 날이 되어 버렸다.

완치 판정을 받고 나니 죽음이라는 불안에서 오는 내 어지러움을 떨 하면서 떨쳐낼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다.

5년이란 시간을 치료에만 쓰고 치료 말고는 아무것도 안 했다는 생각이 들 때 시간만 때우는 내가 보기 싫었던지 동생이 제안을 했다.

“언니야, 우리 대학교 갈래?”

“뭐라고 대학교? 내가 이 나이에 이 건강 상태로?”

“언니가 아프기 전에 배우고 싶다고 했던 제과제빵 학교 가보는 게 어때? 언니가 어지러운 것도 있고 체력이 완벽하게 나아진 게 아니니

내가 같이 가줄게.”

“같이 대학에 가자고?”

“어! 같이 가자. 이렇게 언니의 젊은 날을 보내는 게 아깝지 않아?
우리 같이 가보자.”

고맙기도 한 말이고 황당한 말이라고도 생각했다. 지금 내 나이 41살에 대학생? 이게 가능한 일인가? 수많은 의문과 질문을 생각했지만 이미 나도 모르게 원서를 쓰고 있었고 입학금을 입금하라는 학교의 문자를 보고 더욱 실감이 났다.

그렇게 나는 41살에 호텔제과제빵 21학번이 되었다. 나와 함께해 준 내 동생도 37살의 새내기가 되었고 조별로 이루어지는 수업이 많은 학과라 교수님의 배려로 우리는 항상 같은 조가 되었으며 둘도 없는 선의의 경쟁자도 되었다.

고등학교 때부터 특성화고를 다니며 제과제빵을 배운 아이들에게는 분할하고 다듬을 때 쓰는 네모난 도구인 ‘스크래퍼’도 모르는 우리 자매가 많이도 답답했을 거다.

나이가 많은 우리와 같은 조가 되기도 많이 꺼려졌을 텐데도 스무살의 아이들은 예쁘고 고맙게도 우리에게 “언니~ 언니~” 하며 잘 따라주었다. 친구처럼 대해주는 아이들 덕에 정말로 또 한 번의 스무살을 살아가고 있었다.

빵을 만든다는 게 생각보다 체력을 많이 소모하는 일이었지만 생활처럼 먹던 약을 챙겨 먹으며 버텼다.

다른 학과보다 수업이 빨리 시작하여 기상은 항상 5시 30분. 신랑 출퇴근도 챙기고 집안일도 챙겨놔야 하고 나이 어린 동생들과 공부하니 아침에 뽀사시하게 꽃단장도 해야 했다.

무거운 철판을 들다 보니 손가락은 아프다며 아우성치고 어깨에는



날마다 파스 냄새가 가시질 않았다.

동생이 나에게 준 이런 기회를 아프다는 핑계로 포기하거나 놓치기 싫었다. 더 이상 내 짧은 날들을 포기하고 그냥 보내기가 싫었다. 그래서 누구보다 더 열심히 누구보다 더 빨리 습득하고 싶었다.

20년 전의 나보다 지금의 나는 매사에 열심히 하였고 첫 모의고사

를 치고 나니 올A. 그리고 나의 선의의 경쟁자 동생도 올A를 받는 멋진 일을 같이 해냈다.

그렇게 쉽 없이 1학기를 보내고 무더운 여름 특강 신청을 해서 열심히 들었다. 장맛비가 그렇게 쏟아지는 날에도 자격증 시험을 보러 들이 열심히도 다녔던 것 같다. 코로나로 인해 시험을 칠 수 있는 시험장이 줄어들어 원서 접수부터 전쟁이었지만 나는 실기·필기해서 두 달여 만에 제과기능사 자격증에 합격했고 그렇게 방학을 보내고 나니 2학기가 시작됐다.

2학기는 아예 모르던 처음과는 달리 아이들보다 조금은 앞서 나가고 시험으로 나올 창작품에 대한 고민도 그리고 아이들의 고민도 같이 의논해 줄 수 있는 정도의 여유가 생겼고 그해 겨울 나는 전교 1등을 하여 장학금도 받게 되었다.

2학년이 되며 나는 제빵기능사, 바리스타 2급 자격증까지 지금까지 갖지 못했던 내 능력을 인정받는 듯한 자격증들을 줄줄이 취득하였다.

2학년 9월부터는 졸업 작품도 준비해야 했다. 마음이 잘 맞는 아이들과 4인 1조를 이루어 학교 축제 때 전시도 하고 그 작품으로 마지막 평가를 받아야 했다. 우리 조는 어벤저스를 모티브로 하여 슈가 크래프트 작품을 제출하였고 1등인 대상도 차지하게 되었다.

코로나로 불편한 날들이 한두 번은 아니었지만 코로나 때문에 대학교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 같다. 코로나로 이론 수업들은 온라인 수업이 많아져서 학교생활이 조금은 쉬웠던 건 사실이다.

학교 축제도 무사히 마쳤고 마지막 수업으로 2인 1조로 만드는 창작 케이크도 동생과 합을 잘 맞추어 교수님에게 칭찬도 많이 받으며 제출하였다.

항상 고마운 아이들의 제안으로 일본 여행도 갔다. 코로나로 인해 MT며 졸업 여행도 못 했기에 우리만의 졸업여행을 간 것이다. 일본을 10번도 넘게 갔던 나는 사실 거기서 거기인 관광지였지만 이 아이들과 함께하니 여행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와 함께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일인지도 알게 되었다.

졸업식에서 학위를 받던 날 어찌나 기쁘고 몽클하든지. 내가 할 수 있고 해냈다는 2년의 세월에 뜨거운 박수를 보내며 마음속으로 남몰래 눈물을 흘렸다.

새로운 나의 인생길에 서 있는 기분이 든다. 이제 나는 뭐든 할 수 있다. 그 자신감 하나만으로 나는 마흔네 살에도 마흔다섯 살에도 무언가를 찾고 또 해내고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나는 오늘 완치 판정 후 1년 만의 정기검진을 하러 간다. 지금은 코로나가 많이 완화되었지만 오늘도 마스크를 꼭 눌러쓰고 떨리지만 피할 수 없는 검사를 받으러 병원으로 간다. 검사를 위해 공복을 유지하고 있어 힘들지만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지나온 시간을 생각하면 말이다. 좋은 결과가 있을 거고 나쁜 일들을 씻어 낼 수는 없으니 그 위에 계속 계속 좋은 일들만 쏟아부으며 앞으로의 내 삶을 살 것이다.

해림아~ 지금까지 힘들었지? 그런데 그 시간이 있어서 지금의 나도 미래의 나도 있을 거야. 힘내자. 죽을 때 죽더라도 행복한 사람이었다는 평가는 제대로 받자. 너의 40대를 진심으로 응원해.

2023 여성시대 신춘편지쇼

장려상

엄마는 술래

애청자

조 금씩 불러오는 배를 옥양목 천으로 꿰뚫어 싸매고 조산소를 찾았다. 나이 지긋한 원장은 아기가 너무 커서 수술은 할 수 없으니 출산 준비를 하는 쪽으로 생각해 보라고 했다. 갓 스물 나이에 첫 출산이라니 눈앞이 캄캄했지만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은 혼자 책임져야만 했다. 아기 아빠나 가족들이 없냐는 질문에 고개만 좌우로 절레절레 흔들었다.

서너 달 사귀다 헤어진 양조장 집 오빠는 이미 약혼자와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고, 새엄마의 구박에 못 이겨 집을 나온 마당에 나의 보호자는 아무도 없었다. 갈 곳이 없고 답답할 때 가끔 찾아가던 이모 할머니가 계시지만 이런 꼴로 찾아갈 엄두는 나지 않았다. 당장 병원 비도 없는 처지에 아기를 낳아 기른다는 것은 둘이 낭떠러지로 추락

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원장은 내게 아기를 입양 보내는 것은 어떻겠냐고 물었다. 외국으로 입양 가는 게 대부분이고 국내에서도 양부모를 잘 만날 수 있으니 생각해 보라고 했다. 입양을 보내기로 하면 병원비와 출산에 필요한 모든 경제적인 부담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고개를 숙인 채 죄인처럼 풀이 죽어 앉아 있던 나는 입양이라는 말과 돈에 대한 부담이 없다는 말에 고개를 끄덕거리며 조산소를 나왔다.

숨만 겨우 쉴 정도로 동여맨 배는 내 숨통까지 조여 오는 듯 답답하고 불러오는 배만큼 불안도 커졌다.

식당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이면 식탁을 한쪽으로 밀어 놓고 구석에 모로 누워 잠을 청했다. 출산 날짜가 가까워지고 결국 주인 할머니한테 임신 사실을 털어놓고 며칠만 시간을 달라고 얘기했다. 할머니는 혀를 끝끝 차며 “아가 아를 낳게 생겼으니 우짜면 좋은지 모르겠네.” 할머니의 한숨 소리가 지붕이 무너질 듯 크게 들렸다.

출산을 며칠 앞두고 나는 서류에 사인을 했다. 친자 포기 각서, 호적 관련 서류, 나중에도 아기를 찾지 않겠다는 모든 서류에 도장을 찍고 사인을 하면서 소리 없는 울음이 가슴을 훑어 내리고 굵은 눈물 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아기 이름은 짓지 않았어요. 알고 있는 게 오히려 나중에 문제가 되기도 하니까. 성별도 알려 주지 않을 거예요.”

철저한 비밀을 요구하는 그들의 모습에 주눅이 들어서 나는 어떤 말도 요구도 하지 못했다.

아기를 낳으면서도 얼마나 겁을 먹었던지 크게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목구멍이 터지도록 진통을 참아내야 했다. 입이 말라 목구멍이 따

끔거렸다. 열 시간이 넘는 초산의 진통은 표현하기 힘든 고통이었다. 실신할 지경에 이르러 아기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정신을 차렸을 땐 아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제발 부탁이니 아기 얼굴을 한 번만 보게 해 달라고 간청을 했다.

조산원의 품에 안긴 아기가 들어왔다. 손끝으로 아기 얼굴을 만지려는데 붉게 상기된 연한 피부가 터질까 봐 조심스러웠다. 내 뱃속에서 열 달 남짓 함께했던 소중한 나의 또 다른 생명을 이리도 허무하게 떠나보내야 한다는 현실이 산고의 진통에 단장의 슬픔까지 없어 놓고 있었다.

숨털이 보슬거리는 이마를 살그머니 쓸어 올리니 아기는 용을 쓰며 울기 시작했다. 입술이 새파랗게 변하도록 울던 아기는 지쳤는지 흐느낌을 길게 남기고 다시 멀어졌다. 눈시울에 눈물을 가득 담고 어디론가 떠났다.

아기가 떠나고 암흑 같은 세상에 내동댕이쳐진 비참한 시간은 그저 소리 없는 고문이었다. 젖몸살로 마음대로 돌아누울 수조차 없는 힘든 시간이었지만 더 고통스러웠던 건 귓가에서 쟁쟁하게 울리는 그 아이의 울음소리였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그 아이의 울음소리는 내 귀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아기를 보내고 다시 식당으로 돌아왔다. 식당 일이 끝나면 손님들이 남긴 술을 훌쩍거리며 잠이 들곤 했다. 내가 버린 그 아이가 나를 얼마나 원망하며 살아갈지 생각만 해도 숨이 막혔다. 밥맛도 없고 사는 것도 의욕이 없었다.

대인기피증과 불안 장애로 힘든 시간을 보내던 중 주인 할머니가 내게 맞선을 주선해 주셨다. 과거에 얽매어 살지 말고 훌훌 털고 새

출발 하라고 가까운 인생 낭비하지 말라는 충고도 해 주셨다. 과연 내가 그렇게 살아도 되는지 의문이 생겼다. 지나가는 아기를 봐도 가슴이 벌렁거리고 드라마에서 아기가 울어도 눈물이 쏟아지는데 어찌 아무렇지 않게 살 수 있을까, 도무지 자신이 없었다.

가슴속에 먹구름을 잔뜩 안고 맞선 장소로 나갔다. 눈빛이 선하게 생긴 남자는 담담하게 대화를 주도해 나갔고 잠시 망설이더니 고백할 게 있다고 했다. 마른침을 몇 번 삼키고 나서 그는 미안하다는 말로 이야기를 꺼냈다. 어찌어찌하여 백일이 지난 아기가 있다고 했다. 아기 엄마는 출산 이후 과다 출혈로 깨어나지 못하고 겨우 아기만 살았다고 했다. 자신의 조건이 좋지 않아 망설였는데 할머니의 성의가 고마워서 나온 거라고 말끝을 흐렸다.

잠시 고개를 숙인 그의 모습에서 오래전 내가 아이를 떠나보내며 모든 친권을 포기한다는 서명을 하던 그날의 참담함이 떠올라 현기증이 났다.

전혀 놀라는 기색도 없이 그를 바라보는 내 눈에 나도 모르게 이슬이 어롱거렸다.

“그럴 수도 있지요. 혼자 아이를 키우다니 대단하세요.”

오히려 그의 고백이 내게 편안함을 안겨 주었고, 다음부터는 아기와 함께 데이트를 하자고 말했다. 어둡던 그의 얼굴에 꽃잎 같은 미소가 넓게 번지고 있었다.

남자의 아기를 처음 만나던 날, 나는 떠나보내야 했던 내 아이를 떠올리며 만감이 교차했다. 낮가림도 없이 내게 미끄러지듯 안기는 아기를 보며 나는 비로소 허전한 가슴에 무언가 채워지는 느낌을 받았다.

“아이가 순해서 잘 울지도 않아요.”



그는 능숙하게 분유를 타면서 말했다. 그 말이 오히려 슬프게 들렸다. 분유를 타서 아기 입에 물리자 동그란 입을 벌리고 오물거리며 젖병을 빠는 모습이 신기하고도 사랑스러웠다. 얼마나 안아 보고 싶었던 아기인가? 아기는 분유를 먹으면서 내 엄지손가락을 꼭 쥐고 놓지를 않는다. 거의 필사적으로 울기만 하던 그 아이와는 다르게 죽을힘을 다해 분유를 먹고 있는 아기의 이마에 작은 땀방울이 맺혔다. 이슬이 채 마르지 않은 풀잎 같은 솜털 위에 수정 알갱이 같은 영롱한

구슬이 아기의 이마에 송송 매달렸다. 손으로 닦으려니 손끝이 떨렸다. 그 아이 양 볼을 어루만지고 싶어 손을 뻗었을 때도 심한 떨림이 내 의지와는 다르게 심장까지 흔들려 대고 있었다.

이름도 없이 떠난 내 아기, 얼굴이라도 제대로 보고 발가락이라도 만져 볼 것을 아무것도 기억에 담아 두지 못한 채 긴 세월 가슴앓이만 했다.

분유를 다 먹고 난 아기는 이내 곤한 잠 속으로 빠져들었다. 아기 손을 만지작거리며 나는 아기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떠나보내야 했던 그 아기와 내게 다가온 이 아기를 그저 내 운명이라 받아들여야 하는 건지. 머릿속에 뚱뚱 떠다니는 물음표 수십 개가 울창이알처럼 한가득 꼬리를 물고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아기를 만나면서 자연스레 술도 멀리하게 되고 정신과 약도 필요 없게 되었다. 그는 내게 함께 살자고 했지만 나는 여전히 자신이 없었다. 나의 과거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고 망설이던 나를 향해 그는 시간을 갖고 천천히 생각해 보라고 했다.

떠나보낸 아이에 대한 미안함과 나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던 어느 날, 어느 때와는 다르게 그가 술을 마시고 나를 찾아왔다.

“혹시 그 아이 때문인가요? 식당 할머니한테 대강 이야기는 들었어요. 아무 부담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저도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아기와 헤어진 엄마 마음이 어떤 건지 조금은 알 것 같고 서로 부족한 부분도 채워 나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생겼어요. 나중에 ‘그 아이’도 함께 찾아보고 제가 힘이 닿는 한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 아이 때문에 선뜻 결정을 하지 못한 나의 치부가 오히려 그에게는 결정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말에 닫힌 마음이 서서히 열리고 있었다. 어렵지만 함께 그 아이도 찾아보자는 그의 따뜻한 관심이 내게 희망의 열쇠를 쥐여주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언제나 가슴속 깊은 곳에 숨겨 놓아야만 했던 그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털어놓을 수 있다는 사실이 지금까지 머리에 이고 살았던 바윗돌 하나를 내려놓는 듯 홀가분함을 안겨 주었다.

그를 만나지 못해 서운한 것보다 아기를 못 보는 아쉬움이 더 컸던 이유로 우리는 셋이 함께 살기로 했다.

이제는 아이가 울어도 예전처럼 머리가 깨질 듯한 통증은 찾아오지 않았다. 내가 이 아이를 친자식처럼 잘 돌보면 나를 떠난 그 아이도 누군가가 잘 키워 줄 거라는 생각이 나에게 위안을 해주었다. 밤마다 아기를 재우며 나는 아무것도 기억 속에 담아두지 못한 그 아이의 행복을 빌었다.

이름도 없이 떠나서 부를 수도 없는 내 아기,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 그 아이, 어느 곳에서 잘살고 있는지 늘 보고 싶고 장난감을 살 때도 새 옷을 살 때도 얼마나 자랐을까? 궁금하고 만나고 싶은 그 아이.

아이가 너무 보고 싶은 날은 꿈을 꾸기도 한다. 이름도 모르는 내 아이를 찾아 정신없이 달리는 꿈을 꾸고 나면 온몸은 땀에 젖어 있고 남편은 내 손을 잡고 괜찮다고 토닥거린다.

“그 아이도 어디선가 가족을 만나서 잘살고 있을 거야!”

남편의 위로가 내게 편안한 자장가가 되어주면 다시 잠을 청했다.

내게 찾아온 아이는 어느덧 청년이 되었다. 아들이 군 입대를 앞두고 있을 때 남편은 폐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 길지 않은 투병 생활로

힘들어하면서도 남편은 절대 수술받지 않겠다고 했다. 남편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다. 자기 몸은 자신이 잘 안다고 수술을 거부하고 주변을 정리하겠다고 남편의 말을 받아들여기로 했다.

떠나는 날까지 남겨질 나를 걱정하던 남편.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다 작은 일기장을 발견했다.

<그동안 우리 아이 잘 키워줘서 고맙고 끝까지 함께하지 못해 미안하오. 죽기 전에 그 아이를 만나면 무언가 해주고 싶어서 조금씩 저축을 한 것이니 혹시라도 만나거든 꼭 전해 주시오. 그 아이도 좋은 양부모 만나 어디선가 잘살고 있을 거라 믿어요. 적극적으로 찾지 못한 아쉬움이 크지만 내 하늘나라 가면 어디서 사는지 알아보고 기별할 테니 앞으로 더 이상 슬퍼하지 말고 편하게 살아요.>

남편의 마지막 편지였다. 속절없이 떠나보내고 나 혼자만 아픈 과거 속에 묻어뒀다고 생각한 그 아이를 남편도 기억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저러왔다.

그 아이도 떠나고 남편도 떠나고 나를 친엄마로 알고 있던 아들은 출생의 진실을 알고 약간의 방황을 하는 듯 보인다.

다시 혼자가 된 듯한 지금,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인생 이야기를 하는 것은 세월 탓인지 아니면 외로움을 스스로 이겨 보려는 용기인지 모르겠다.

이젠 그 아이를 떠나보낸 죄의식을 벗고 내 인생의 날갯짓을 시작해 봐야겠다. 이제 겨우 깨달았다. 그 아이는 언제나 나와 함께 숨 쉬고 나의 삶에 항상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있었다는 것을….

2023 여성시대 신춘편지쇼

장려상

눈보라 속에서 그 아이와 함께

송주광 | 경기도 김포시

내가 초등학교 4학년이던 1972년 12월 하순의 어느 날, 교실 청소를 마치고 밖으로 나오니 매서운 바람 속에서 한 점 두 점 눈송이가 흩날리기 시작했다. 우산도 없는 마당에 집까지 가는 길이 멀어서 눈이 많이 온다면 큰일이었다. 서둘러 교문을 나서는데 기둥 뒤에서 누군가 불쑥 앞을 막아섰다.

“주광아!”

같은 동네에 사는 동갑내기 연주였다. 점점 더 심해지는 눈보라 속에서 연주는 두 손을 호호 불며 발을 굴러댔다.

“어? 너 아직 안 갔어?”

“춥고 어두워져서 혼자 가기 무서워. 너하고 같이 가려고 여기서 기다렸어.”

“이렇게 추운데 우리 교실로 오지 그랬어?”

“아이, 참~ 바보야! 애들이 보면 놀리잖아.”

그때만 해도 초등학교 4학년이 되면 바로 남녀 각반으로 나뉘지던 시절이었다. 1반부터 6반까지는 남자 반, 7반부터 12반까지는 여자 반. 상급학교인 중학교, 고등학교로 진학하면 남녀 학교로 완전히 분리되었다. 어른들은 남녀칠세부동석을 실천했고 애들 또한 함께 걷기만 해도 “얼레리폴레리”하며 놀려댔다. 지금 돌이켜 보면 참 고루한 생각이었던 것 같다.

연주네는 우리 동네에서 제일가는 부잣집이었다. 인근에서도 이름난 지주고 부호였다. 엄청난 평수의 논과 밭이 연주네 토지였고 여러 채의 가옥이 그들의 소유였다. 동네 사람 대부분이 세입자였고 우리 집도 예외는 아니었다.

연주네 집은 연로하고 치매기가 있는 할아버지와 정정한 할머니 그리고 연주를 포함해 부모님과 네 명의 동생까지 모두 9명, 3대가 모여 살았다.

그 집에는 소를 키우고 농사일을 돕는 머슴 총각과 부엌일을 하는 식모 아주머니도 있었다. 오늘처럼 춥거나 궂은날에는 머슴 춘식이나 부엌데기 경주댁이 우산이나 우비를 들고 먼 길을 걸어서 데리러 오곤 했는데 오늘은 어떤 일인지 그들이 오지 않은 모양이었다.

“춘식이 형은 안 오는 거야?”

“아이 몰라. 춥고 배고프단 말이야. 얼른 집에 가자.”

연주는 꾸물거리는 나를 재촉했다. 과자와 국화빵 같이 주전부리를 팔던 학교 앞 문방구도 문을 닫았다.

연주와 나는 눈보라를 헤치며 우리가 사는 별동네로 향했다. 구로동 소방서를 지나고 조밀한 주택가 골목을 허둥거리며 빠져나오자 남



쪽으로 길게 이어진 경부선 철길이 나왔다. 짙어진 눈보라 속에서 세상엔 잿빛 안개에 싸여있는 것 같았다. 눈보라가 어지럽게 훑날리는 철길을 연주와 나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좌우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건너갔다. 철로에는 차단기가 두 곳 있었으나 그쪽을 통해 가려면 너무 멀어서 우리는 철길 한가운데를 가로지르기로 했다. 차갑게 얼어있는 연주의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주광아, 얼른… 얼른… 건너자. 나 무서워.”

연주의 얼굴은 점점 더 하얗게 질려갔다. 지난가을에 우리가 건너려는 지점 부근에서 3학년 남자아이 둘, 1학년 남자아이 하나가 열차에 치여 죽었다. 철길에 나와 놀다가 변을 당한 것이다. 긴 대못을 레

일 위에 놓았다가 기차가 지나가면 납작해진 대못을 가지고 노는 것이 유행이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위험천만한 놀이다.

죽은 3학년 아이 하나와 1학년 아이는 형제였는데 그날 연주와 나는 집으로 가다가 그 주검들을 보았다. 사람들이 빼곡하게 몰려있었고 통제하는 안전원을 따라 철길을 건너던 우리는 가마니에 싸여있는 무언가를 보았다. 가마니는 양쪽 철로가에 나뉘어 있었는데 피가 묻은 작은 발이 보였고 거기에서 흘러나온 붉은 피가 웅덩이처럼 고여 있었다. 그때 본 그 광경은 각인처럼 뇌리에 박혔다. 철길을 무사히 건너 연주는 비탈길을 내려가다가 주저앉아 눈물까지 글썽이며 풀밭에 토악질을 해댔다.

우리는 눈 사이로 나 있는 길을 눈보라를 맞으며 계속 걸었다. 얼굴에 부딪히는 눈발은 차고 아린 데다 거세기까지 해서 숨이 턱턱 막히고 턱이 덜덜 떨렸다.

‘어쩌면 집에 못 갈지도 몰라.’

극심한 추위와 배고픔으로 절망에 빠져들었다. 한참을 걷다가 논바닥에 노적가리가 쌓여있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외가의 초가집처럼 안전하고 따뜻하게 보였다.

“연주야, 추워서 더는 못 견뎌다. 우리 저기서 잠시 쉬었다 가자.”

원통형으로 쌓아둔 벼단을 킁킁거리며 뚫어내자 아이 둘이 들어왔기에 넉넉한 공간이 마련되었다. 노적가리 속은 바람이 들지 않았고 묵은 짙단 냄새가 났지만 생각보다 아늑하고 따뜻했다.

“연주야... 연주야...”

대답 없는 그 아이를 돌아보니 고개를 숙이고 잠에 빠져들고 있었다. 나는 연주를 강하게 흔들어 깨웠다.

“너, 저기 우리가 내려온 논둑에 배수문 있는 거 보이지?”

“응.”

“저기 배수문 앞에 물이 고여 있거든. 근데 3월 말이 되면 그 물속에 꽃새우가 태어난대.”

“응? 꽃새우가 뭐야? 어떻게 생겼는데?”

“새우인데 좀 커. 연두색 몸통에 다리는 많고 꼬리는 예쁜 분홍색이야.”

“신기하다. 어떻게 찾아냈어?”

“집에 가다가 우연히 봤는데 생긴 것도 다 다르고 색깔도 여러 가지야.”

“올봄에 나도 꼭 보여줘. 근데 봄은… 언제… 오나…”

꿈결 같은 연주의 대꾸를 들으며 나는 배수문 독에 피어날 제비꽃이며 양지꽃 같은 자잘한 들꽃들을 떠올렸고 축축한 벚짚 냄새 속에서 따뜻한 봄의 온기를 생각했다.

그러다 문득 어디선가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 덕구다. 덕구가 나를 찾아왔다. 나는 소스라치며 연주를 깨웠다.

“연주야 연주야, 일어나 봐. 덕구가 왔어.”

덕구와 나는 한동네에서 함께 자라온 친구였다. 덕구는 연주네가 키우는 개였는데 연주네 식구보다 나를 더 좋아했다. 내가 다섯 살 무렵 강아지하고 놀던 기억이 있어 엄마한테 물어보니 그게 덕구라고 했다.

어둠 속에서 덕구의 하얀 몸이 다가왔다. 나에게 달려들어 앞발을 어깨 위에 올려놓고 꼬리를 흔들며 내 얼굴을 마구 핥아댔다. 밖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랜턴 불빛이 여러 개 흔들렸다.

“연주야! 주광야!”

우리 아버지 목소리다.

“어이구 애들이 여기 있었구나. 이 눈보라 속에…”

연주 아버지 목소리도 들렸다. 나는 덕구를 떼어내고 밖으로 나왔다. 눈발은 그새 약해져 있었고 날은 완전히 어두워져 있었다. 저만치 앞장서 걸어가는 덕구를 바라보며 아버지 등에 얼굴을 묻었다. 얼마 만에 업혀보는 아버지의 등일까? 아버지 등에서는 언제나 자동차 기름 냄새가 났다. 그리고 편안했던 그 냄새는 허허벌판에서 따뜻한 집으로 나를 이끌고 있었다.

우리 가족은 이듬해인 1973년 가을에 영등포구 구로동 별동네를 떠나 고척동으로 이사했다. 떠나기 전 봄에는 연주에게 약속한 대로 꽃새우를 보여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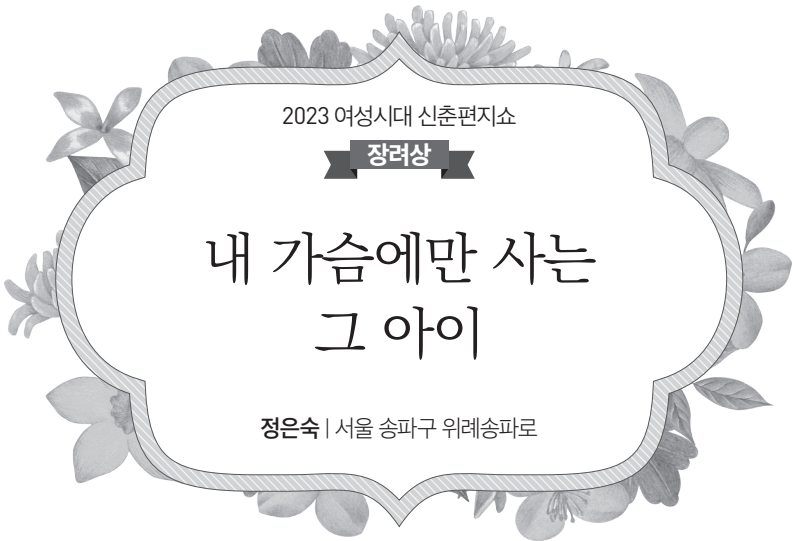
연주와 나는 중·고교 시절에는 한 번도 만나지 못했다. 연주는 고등학교 졸업 후 사범대에 갔다고 들었다.

그러다 내가 군 입대를 앞두고 있던 어느 날, 구로동 버스정류장에서 우연히 연주를 다시 만났다. 우리는 다음 날 단 하루의 데이트를 즐겼다. 연주가 다니는 학교의 상징인 코끼리 상도 구경하고 학생 식당에서 점심으로 오프라이스도 나눠 먹었다. 학교 앞에서 맥주 한잔을 끝으로 그 아이의 집까지 데려다주었다. 연주의 집까지 가는 논길에서 우리는 학창 시절 함께 고생했던 그해 겨울 이야기를 나누었다.

“내 소꿉친구, 어릴 적 눈보라 속에 네가 곁에 있어서 참 든든했어. 고마워. 군대 잘 다녀와.”

그렇게 우리는 정겹게 악수하며 작별했다.

한 해의 겨울이 끝나고 봄이 다가오면 아련한 추억 속에 잠들어 있던 그해 겨울 눈보라를 생각한다. 그 아이도 가끔 그해 겨울을 생각하며 봄을 기다리겠지. 그리고 어느 하늘 아래에서 나처럼 늙어가고 있겠지.



<부> 디 용서해 주십시오. 이 결정을 하는 동안 너무나 가슴이 아파 날마다 울었습니다. 이 연약한 아기를 제발 지켜주십시오. 저는 아직 열아홉이지만 차마 아기를 지울 수 없었습니다. 제가 무슨 염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아기를 잘 부탁드립니다.>

센터 직원이 손을 덜덜 떨며 베이비박스에서 방금 막 미혼모가 아기의 가슴 위에 놓고 간 쪽지를 읽고 있었다. 땀땀한 활자에서 눈물 냄새가 났다. 곁에서 함께 쪽지를 읽던 나도 슬픔과 안타까움으로 눈물범벅이 되어갔다.

아기는 내가 웃으며 색색의 딸랑이를 흔들어줘도 세차게 울었다. 파리한 남자 아기가 숨이 넘어갈 듯 불규칙하게 헐떡였다.

그렇게 21년 전, 부모로부터 축복의 이름조차 얻지 못한 그 아기는 내가 그 베이비박스 센터에서 막 봉사를 시작하던 날 나와 처음으로 만났다.

그날 센터장님께서는 그 아기를 데리고 병원으로 달렸다. 그리고 의사로부터 하루만 더 늦게 베이비박스에 도착했으면 아기가 죽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런데 아기는 이상하게 내 눈과 자주 마주쳤다. 어쩌면 그 아기의 미혼모와 내 눈매가 비슷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며칠 후 아기는 더 큰 복지시설로 떠나야만 했다. 나는 그날 봉사를 하지 않는 날이었지만 그 아기와와의 마지막 작별을 위해 센터로 달려갔다. 얼마 후 베이비박스 감독 공무원과 앞으로 아기와 지낼 그 복지시설 직원이 센터에 도착했다. 그리고 창밖 자줏빛 수국이 바람에 미치게 흔들리는 순간 아기가 그 복지시설 직원에게 안겼다.

나는 며칠 되지 않았지만 그 아기와 정이 잔뜩 들었던 터라 그 직원 뒤에서 기를 쓰며 아기와 눈을 마주치기 위해 다가섰다. 고맙게도 그 아기가 내 눈을 한참 뵈히 바라보았다.

“잘 가라 아기가.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나는 흐르는 눈물을 내버려 둔 채 아기를 향해 중얼거렸다. 아기가 뜻 모를 미소를 지었다. 나는 처음으로 아기의 미혼모가 미워졌다. 잠시 후 아기를 태운 봉고차가 멀어져갔다. 하늘 멀리 이름 모를 새떼들도 어디론가 날아가는 오후였다. 나는 가슴이 저려 견딜 수가 없었다. 그날 이후 나는 그 아기 생각에 목욕 봉사를 하면서도 가끔 멍한 상태가 되었다.

그 베이비박스 센터에서는 그 아기처럼 며칠 후 곧바로 큰 복지시설로 떠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장애가 있는 아기들은 다른

시설에서 선뜻 받아주지 않아 그 센터에서 계속 머무는 예닐곱 살 먹은 아이들도 몇 명 있었다.

내가 그 아기를 떠나보내고 갈팡질팡하던 날 그곳 조금 큰 아이들 중에서 한쪽 다리를 저는 여섯 살 민지라는 아이가 유독 내 팔을 잡아끌었다. 그렇게 살가운 민지라는 그 아이의 이름은 미혼모가 마지막으로 베이비박스에 남겨둔 쪽지를 보고 알았다고 한다. 며칠 전 봉사 첫날부터 내 곁에 붙어 서성이던 선물 같은 아이였다.

당시 나는 다른 봉사자들과 함께 센터 아이들을 모두 목욕시키고 집에 돌아갈 무렵이면 매번 진이 다 빠지곤 했었다.

그렇게 힘겨웠지만 그 봉사는 내 인생 후반전의 사명 같은 것이었다. 절대 멈출 수 없는 나와 의 약속이었다.

실은 나도 긴 세월 왼편 무릎관절이 좋지 않아서 그쪽 아픈 무릎은 쪽 편 채 목욕을 시켜야 해서 더욱 힘들었다. 그 무릎 통증은 어린 시절부터 이미 시작되었지만 그 당시 나는 누구에게도 아프다며 하소연할 수 없는 처지였다.

나는 오랜 세월 작은 장애인센터에서 일을 했었다. 그곳은 세상에서 밀려나 허둥대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다. 물론 내가 처음 장애인센터에서 일을 시작할 때만 해도 그 힘겨운 분들에 대한 사랑이 그렇게 깊은 편은 아니었다. 긴 세월 그분들을 돌보면서 사랑이라는 것을 조금씩 배우게 되었다.

그러나 나는 결국 그 무릎 질환 때문에 조금 일찍 은퇴했지만 나름 뜻한 바 있어 그 목욕 봉사를 시작했었다. 그곳은 이전처럼 힘겨운 아이들에게 내 마음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았다.

그 무렵 몇몇 친구들은 내가 몸이 불편한데도 그 봉사를 한다며 민감하게도 나를 ‘이승의 천사’라고 불렀다. 그렇게 부르지 못하도록 아

무리 말려도 소용없었다.

그러나 나는 천사가 아니었다. 다만 고통받는 그 아이들의 편에 좀 더 가까이 머물고 싶을 뿐이었다. 그냥 그 아이들 곁에서 내 힘이 닿는 대로 그 말 못 할 아픈 마음을 데워주고 싶었다.

아니, 실은 나도 어린 시절 그 아이들과 비슷한 아픔을 품고 자랐었다. 나는 아이들을 목욕시킬 때마다 갈기갈기 찢겼던 내 유년의 고아원이 떠올라 늘 울면서 씻겼다. 목욕시킬 때마다 아이들도 울고 나도 울었다.

다행히 내 어린 시절의 상처를 잘 아는 남편은 내게 박수를 보내줬다. 그리고 내가 봉사를 나가는 동안 집안 살림도 거의 다 해줬다. 남편은 가끔 서툰 실력으로 접시가 손에 미끄러져 깰 때도 있었지만 설거지며 방 청소를 나름 잘해 주었다. 나는 그런 남편이 참 고마웠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장마철이었지만 그날은 화창하게 갠 날이었다. 민지가 뜰에서 작은 장미꽃 한 송이를 만지며 혼잣말을 하고 있었다. 나는 궁금하여 그 아이에게 무엇을 하는지 물었다.

“혼자서 뭐 하고 있니?”

“엄마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민지는 장미를 엄마라고 불렀다. 나는 장미와 장미 사이에 끼여있는 민지를 바라보며 왈각 눈물이 났다. 그 아이는 얼굴도 모르는 엄마가 너무나 보고 싶은 것 같았다. 나는 훌쩍이며 주방으로 뛰어갔다. 그리고 민지가 가장 좋아하는 떡국을 끓이기 시작했다. 이윽고 나는 아직도 그 장미꽃을 만지고 있는 그 아이를 불렀다. 유리창 넘어 주춤거리던 민지가 떡국이라는 말에 절뚝거리며 달려왔다.

그 아이는 떡국을 먹으면서도 내내 창밖 그 장미 한 송이를 바라보고 있었다. 민지는 이상하게 그 많은 장미꽃 중에서 그 장미 한 송이



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장미꽃 밑동의 줄기가 아래로 떨어질 듯 수그리고 있는 웬지 초라한 장미꽃이었다.

그래서인지 그날 이후 나는 바람이 세게 불거나 비가 오는 날이면 그 장미 한 송이가 꺾이지 않을까 늘 걱정이 되었다.

그 시절 나는 가끔 목욕 봉사가 끝나면 잠깐 시간을 내어 조금 큰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었다. 봉사 전에 미리 잘 아는 동화 구연자분에게서 배운 어설픈 실력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나는 아이들을 모아놓고 동화책을 읽어주

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민지가 아까부터 다른 동화책 한 권을 두 손에 꼭 쥐고 가슴에 안고 있었다. 그리고 내가 막 동화책 한 권을 다 읽었을 때였다.

“이모님, 이 동화책도 읽어주세요.”

그곳 조금 큰 아이들은 센터장님의 말에 따라 나를 모두 ‘이모님’이라고 불렀다. 민지가 손에 쥐고 그 동화책을 불쑥 내게 건네며 읽어달라고 했다. 생각해 보니 전에 우연히 그 아이에게만 한 번 읽어줬던 ‘엄마와 장미’라는 제목의 동화책이었다.

그러나 나는 짐짓 모르는 체하며 얼른 동화책을 펼쳤다. 잠시 후 동화책 첫 페이지를 바라보던 나는 소스라쳤다. 그 첫 페이지의 엄마 그림 옆에는 작은 장미 한 송이가 있었다. 놀랍게도 그 아이가 엄마라고 부르는 그 장미꽃과 모양이 너무나 흡사했다. 줄기가 밑으로 숙인 채 피어 있는 장미, 바로 그 꽃이었다. 처음 내가 민지에게 읽어줄 때는 잘 몰랐었다.

나는 문득 그 아이를 베이비박스에 놓아두고 남몰래 뛰어가며 목놓아 흐느꼈을 그 엄마를 떠올리며 가슴이 아렸다. 나는 눈물이 왈칵 났지만 버텨내며 동화책을 읽었다.

내 앞에서 민지가 기어들어 가는 목소리로 “엄마, 엄마...”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었다. 그 어린아이는 어떻게 뜰에서 그 장미꽃을 발견했을까? 나는 울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다. 그러나 실패하고 얼른 문 밖으로 뛰어나갔다.

나는 아이들을 돌보다 눈물이 나면 꼭 자리를 박차고 도망쳤다. 그런데 하필 외출에서 돌아온 센터장님께 내 눈물을 들켰지만 그분은 모른 척하셨다. 사실 나는 그 센터에서 아이들 앞에서 자주 우는 울보 봉사자로 이미 낙인이 찍혀 있었다.

그 후로도 그 아이는 여전히 그 장미꽃을 바라보며 엄마를 부르고 있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장미꽃은 조금씩 시들어 가고 있었다. 나는 장미를 받침대로 지지하여 들어 올려줄까 고민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원하는 장미는 아래로 고개 숙인 그 장미일 것 같아 포기했다. 그러던 어느 날 결국 그 장미꽃이 툭 떨어졌고 민지가 대성통곡했다.

그 아이는 그 후로도 그 뜰에서 여전히 서성이고 있었다. 손에는 여전히 그 동화책이 들려있었다. 나는 그때마다 차라리 눈을 감아버렸다.

그리고 7개월 정도 봉사를 했을 무렵이었다. 전부터 나를 괴롭히던 무릎관절의 통증이 너무 악화되었다. 나는 더 이상 봉사를 할 수 없을 것 같아 센터장님께 그다음 주부터는 봉사가 어려울 것 같다고 말 씀드렸다.

물론 나는 무엇보다 그 아이와 이별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슬펐다. 그리고 미치게 눈발이 흩날리던 마지막 봉사 날이었다.

“민지야, 이모가 그 동화책 읽어줄게.”

나는 마지막으로 흘쩍이면서 민지에게 그 동화책을 읽어주기 시작했다. 이상하게 아이가 아무 말 없이 내 눈물을 닦아주었다. 나는 결국 울음보를 터뜨리며 민지에게 우리의 이별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헤어지려는데 그 아이가 내 팔을 잡고 영영 울며 놓지 않았다. 센터장님은 민지가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며 그동안 민지가 다른 봉사자들과 헤어질 때 울지 않았는데 참 특별하다고 말했다. 그 아이는 이미 수많은 봉사자와 잦은 이별을 겪은 터라 일찍 포기를 배웠는데 이상하다고 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센터장님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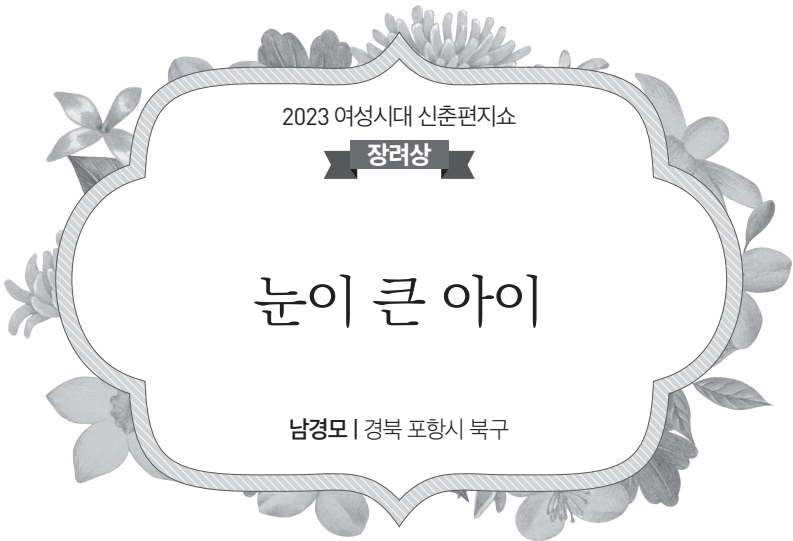
이제 나도 회갑을 지나 그 옛날 민지가 사랑했던 그 장미처럼 조금씩 사그라져 가는 중이다. 물론 나는 그 후로도 그 아이를 만나러 가끔 과자나 우유 등을 사서 들고 관절염이 심해진 다리를 절뚝거리며 그 센터를 찾았었다.

그러나 결국 무릎 수술을 하며 오래도록 입원하느라 한참을 찾지 못했다. 그리고 퇴원 후 급히 가보았더니 민지가 다른 복지시설로 떠났다고 했다. 나는 그 후로도 수술한 무릎을 회복하느라 차일피일 못 만나게 되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나는 민지가 너무 보고 싶어 수소문 끝에 민지가 마지막에 살았다는 복지시설에 찾아갔을 때는 그 아이는 18세가 넘어 이미 그 시설을 떠나 연락조차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 아픈 다리를 이끌고 홀로 세상 속으로 나아갔을 그 아이를 생각하니 너무나 마음이 아렸다. 그 아이는 지금 내 가슴에만 아프게 산다. 민지도 나를 기억하고 있을까?

“민지야, 이모가 너무 미안하다. 오늘따라 네가 정말 그립고 보고 싶구나. 이제 너도 어엿한 숙녀가 되어 있겠구나. 힘겨운 세상이지만 어디서든 꼭 행복하길 바랄게.”

PS: 세상 사람들이 베이비박스에 대해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영문도 모른 채 그 작은 박스에 누워 발견된 그 쓸쓸한 아이들 그리고 18세가 넘으면 또다시 홀로 거친 세상 속으로 터벅터벅 걸어가야 하는 그 슬픔을 우리 사회가 대워주며 따스하게 안아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가 우리 집에 처음 온 날은 바람이 몹시 불었어. 봄이 오는 것을 시샘하는 꽃샘추위에 나는 온 몸에 오소소 한기가 들어 두꺼운 옷을 어깨에 덮고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

시골 초등학교 앞 조그마한 문방구는 아무도 찾아오는 이 없었어.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나면 텅 빈 운동장처럼 점방 안에도 횡하니 찬바람만 불었지.

무료한 시간 점방 문을 밀고 네가 누나처럼 보이는 아이와 같이 들어왔어. 누나 같은데 얼굴은 안 닮았더라. 여자아이는 열대여섯 살쯤 되어 보이고 너는 서너 살쯤 되어보였지.

너의 첫 모습은 께죄죄한 것이 흙장난이라도 하다가 온 것 같은 물결이었어. 하지만 눈망울이 서글하니 참 귀여운 얼굴이었지. 여자아이



가 과자를 집어주자 너는 배가 고팠던지 맛있게 먹었어. 여자아이도 빵과 우유를 마셨지.

계산도 안 하고 먹기에 무척 배가 고팠구나 생각하며 보고만 있었어. 잠시 후 화장실을 간 여자아이는 한참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지. 이상한 생각이 들어 나가보니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

내가 너에게 누나 어디 갔냐고 물어보았지만 멀뚱멀뚱 나만 쳐다

봤지. “누나야 모른다”라며 울먹거렸어. 나중에 안 일이지만 너는 말이 좀 늦었대. 나는 과자 값 못 받은 것보다 네가 더 걱정이 되었지.

어둑해질 무렵 농사 준비로 밭에 가셨던 부모님이 들어오셨어. 낫선 너를 보고 어리둥절해 하셨지. 자초지종 이야기를 들은 부모님은 날이 밝으면 파출소에 데려가겠다고 했어. 그때는 집에 전화도 없고, 유괴라는 말도 모르던 시절이었지.

“아이고, 그놈 참 잘생겼네!”

엄마는 너를 목욕부터 시켰지. 땃국이 벗어지자 이목구비가 또렷하니 정말 잘생긴 얼굴이더라. 손님이라도 와야 맛보는 달걀찜도 너를 위해 아끼지 않았어.

밤이 되자 너는 엄마를 찾으며 울기 시작했어. 우리 엄마는 너를 업고 달래느라 밤잠도 설쳤지.

다음 날은 한 집에 한 명씩 산에 나무를 심는 부역을 하는 날이었어. 엄마는 너를 돌봐야 된다고 나 보고 가라고 하더라. 스무 살이 넘도록 한 번도 안 해본 일이야. 내가 투덜거리며 삽작을 나서려는데 한 무리의 사람들이 네 이름을 부르며 들이닥쳤지.

“민수야 어디 있니? 이리 나와 봐라 엄마 왔다”라며 막무가내로 방문을 열어젖혔어. 조그만 시골마을은 비밀이 없단다. 어젯밤, 낫선 네가 우리 집에 왔다는 소문이 금방 퍼졌어.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못 지나간다고 동네 사람들이 보러왔었지.

“아이고마, 이 집에 아들 없다고 데려다 두고 갔는갑네!”

“업둥이 맞네. 얼굴도 잘생기고, 이 집 사랑양반 닮은 거 안 같나?”

그들은 농담 반 진담 반 한마디씩 자기들 생각을 쏟아놓고 돌아갔지.

나는 형제자매가 없이 혼자 자랐어. 한 집에 오륙 남매씩은 보통으

로 북적이던 시절이었지. 엄마는 맘머느리로서 아들을 못 낳은 것이 평생에 한이었어. 나도 혼자 자라면서 무척 외로웠지. 그런 우리 집 사정을 아는 동네 아줌마들 이야기에 엄마는 내심 업둥이를 바랐는지도 모를 일이야. 그냥 웃기만 하셨어.

너를 찾아 이 집 저 집 가재 뒤짐을 하던 너희 부모는 단숨에 우리 집으로 달려왔지. 몇 집만 들르면 어제 우리 집에 업둥이가 왔다고 알 수 있었지.

네가 무사함을 보자 밤새 찾아 헤맸던 너희 엄마는 그만 쓰러지고 말았어. 어제 함께 왔던 여자아이는 누나가 아니었대. 너희 집에 남자 고등학생 한 명이 하숙을 하는데 자꾸 찾아오기에 공부에 방해된다고 야단을 치셨대. 양심을 품은 그 아이가 삼대 독자인 너를 데려가다 우리 집에 두고 가버렸던 것이지. 과자 값에 너를 맡긴 꼴이 되었어.

너희 엄마는 딸만 셋을 낳고 아들을 낳으려고 부처님께 기도해서 너를 얻으셨대. 그런데 스님이 네가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양엄마를 정해주면 좋다고 하셨대. 너희 엄마는 이렇게 된 것이 부처님 뜻이라며 양엄마가 되어달라고 졸랐고 우리 엄마도 아들 생겨 좋다고 승낙을 하셨어. 그렇게 너는 엄마 아들이 되고 내 동생이 되었지.

한 달에도 몇 번씩 너는 엄마 손에 이끌려 우리 집에 다녀가곤 했어. 때론 누나들과 함께 와서 자고 가기도 했지.

우리 엄마에게 ‘엄마’라고 부르며 잘 따랐어. 엄마도 너를 참 좋아하셨지. 맛난 것이 생기면 ‘민수’ 오면 준다고 나는 손도 못 대게 하며 감추어 두기도 하셨어. 나도 섭섭한 생각은 안 했어. 너는 내 동생이니까.

내가 결혼을 하여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다닐 때 네가 우리 집에 처음으로 놀러 왔었지. 두 아들은 처음 본 외삼촌이 좋아서 함께

뛰놀았지. 군대 간다는 너에게 용돈도 변변히 못 줘 보냈던 것이 마음 아팠어. 박봉에 쪼들리며 살던 때라 지금도 생각하면 마음이 잔해. 친동생이었으면 그랬을까? 하는 자책도 했어.

세월이 흘러 너도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루었지. 결혼식에도 참석을 못하고 여건이 허락지 않는다는 핑계로 누나의 도리도 못하고 살았어.

네가 사업을 시작한다는 말을 듣고 엄마는 잘 되게 해달라며 새벽 기도까지 하러 다니셨지.

너는 혼자 계시는 엄마가 외로울 거라며 전화도 자주 하고, 일 년에 두세 차례 찾아와 위로하며 용돈 챙겨드리고, 고기집에 모셔가고, 친자식도 쉽지 않은 것을 너는 변함없이 했어. 네가 친동생처럼 정말 든든했지.

얼마 후 사업이 잘된다며 엄마에게 매달 용돈도 보내주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듣고 눈물이 났단다. 고맙다고 말했을 때 너는 당연히 해야 하는 거라고 말해서 오히려 내가 민망했지.

어느 해 여름휴가 때 엄마를 너희 집에 모셔가서 인천의 명소도 구경시켜 드리고 고운 옷에 맛난 음식을 대접했지. 엄마는 살면서 제일 호강했다며 어린아이처럼 좋아하셨어. 엄마가 그렇게 좋아하시는 걸 나도 처음 봤지. 마을회관에 가서도 아들 사랑을 많이 하셨단네.

세월은 참 빠르게 지나가지. 우리가 처음 만났던 때가 74년도쯤 되지. 벌써 오십 년이 다 되었어.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했을 때 너는 인천서 포항까지 단숨에 달려왔지. 서럽게 울던 모습에서 엄마를 향한 네 마음이 정말 진심이었다는 것을 느꼈어.

네가 엄마에게 항상 하던 말이 생각나네.

“저는 엄마와 누나 아니었으면 어린 나이에 어디서 어떻게 되었을지 몰라요. 엄마와 누나가 저를 거두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제가 있는 거예요. 정말 고마워요.”

잊어버릴만 하면 그 말을 되새기며 엄마를 기쁘게 해드렸지.

시간이 없어서 장례식 때 끝까지 있어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나중에 다시 내려와 엄마 산소에 다녀간 것도 정말 고마웠어.

‘여성시대 신춘편지쇼’ 글제를 듣는 순간 네 얼굴이 떠올랐어. 엄마 2주기 추도일이 5월이니 너를 못 본지 벌써 2년이 다 되어가네. 많이 보고 싶다.

시골 엄마가 살던 집에 왔어. 마루는 겨우내 쌓인 먼지가 주인이 되었네. 이 마루에 주인은 우리들이었는데.

화로에 숯불을 피워 고등어를 굽고, 마당에선 불을 지펴 돌판을 달구고, 그 위에 삼겹살을 구웠지. 노릇하게 익어지면 제일 먼저 엄마에게 고기쌈을 싸서 입에 넣어주던 네 모습이 눈에 선하네.

엄마는 우리 곁에 없지만 다가오는 여름 이 마당에서 쭉 냄새 향긋한 모깃불을 피우고 달려드는 모기는 부채로 쫓으며, 그때처럼 화로에 불을 피워 네가 좋아하는 고등어구이를 만들어 주고 싶구나.

그날을 기다리며 신나게 마루에 걸레질을 하고 있어. 허리를 펴자 구름 사이로 엄마 얼굴이 보이네. 잘 있다고 웃는 모습으로.

이달의 손편지

할머니 중학생

송영순 |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석동로

가만히 누워 천장을 바라보면서 숨이 차도록 달리기로
 해대던 쥐새끼들을 부러워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가난을 도둑질해서 먹고 사는 쥐새끼들도 저리 힘이
 나서 뛰어다니는 활발함을 배설물로 얼룩진 천장을
 멍때리면서 바라보며 부러워했던 그 시절이
 있었다면 지금에 난 19층 높은 아파트 베란다에
 커다란 창문을 열면서 진한 커피한잔에 여유와
 율해 위난기도 완적 꽃망울을 터트린 벚꽃들의
 향연에 귀 기울이는 나를 행복한 시간이 주어졌네요.
 가난을 흡치던 천장에 폭군들을 부러워하던 그 시절이
 내 인생에 1장 1막이라고 한다면 창문 넘어 밝은 햇살
 한줄을 양념으로 섞어서 제 2의 인생이라 이름붙여서

그 옛날을 잠시 소환해봅니다.

14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공장으로 종종걸음을 걸었다면
 지금 66세로 힘들게 일하던 산업전선에서 정년을
 맞이한 지금 난 제2의 인생에 가장 행복한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14살 공장으로 처음 걸음마를 시작할 때 친구들은 새
 교복을 입고 등교했지만 나는 엄마가 시장에서 나름
 예쁜 옷을 사주시면서 "미안하다"라는 엄마 말쑤에
 "나도 중학교 가고 싶어요"란 원망섞인 말 대신 그 예쁜
 옷에 저절로 새어나오는 입가에 웃음은 그치질 않았었고
 그저 없는 살림살이에 옷을 사준 엄마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이 느껴짐이 1장1막이 있었다면 지금 2의
 인생에서는 딸이 사준 멋진 옷과 격려요, 남편이 사준
 노트와 두둑한 용돈 봉투가 날 소리내어 함박 웃음을
 터트립니다.

매일 새벽 4시30분에 핸드폰에서 울려대던 알람 소리가 들리기전에 어둠을 가로질러 하루를 넘들보다 원칙 시작했다면 지금의 난 참운 님어 환하게 밝아오는 햇살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네요.

핸드폰에 알람시간을 삭제하면서 "영순아... 참.. 고생 많이 했다~" 스스로에게 칭찬도 해주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공장에서 유난히도 혼이 났던 시절에 서러움에 무서움에 눈물을 흘렸다면 지금의 나는 입학축하 문자에 왜 그러도 복받쳐 눈물이 나던지요.

지금의 소리없는 눈물은 그 옛날을 끄집어내어 지금의 날 자랑하고 싶어하는 뜨거운 눈물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 옛날 중학교 진학 대신 공장으로 나가는 날 보면서 긴한숨 소리에 엄마의 뱃두리와 아버지의 험한 기침소리와 함께 새어나오던 자책에 음조림의 소리가 날.. 우울하게 했다면 지금 내 옆에는 그 옛날 아버지보다 더 나이 많은

머리 하면 남편의 든든한 버림곡이 있고 딸래미의 밝고 환한
 응원소리가 나의 제2의 인생에 꽃길을 깔아주고있네요.
 오십여년이 지난 오늘도 배우지 못했다는 한스러움은 나이들어
 짝 처진 피부 사이에서도 공부의 그리움은 한알 두알 배움의
 씨포가 살아서 그저 그저 오늘도 감사함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네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지난 시간들은 한알 두알 떨어져서
 쓸모없는 낙엽대신 땅속 깊이 스며들어 생기고 살면서
 온전한 거름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인 트리가 되어 땅
 속에서 잘 숙여진 기름진 거름이 되어 오늘 이렇게 봄
 햇살 가득한 행복한 집으로 아지랑이 피어오르듯이
 웃음이 가득한 가정에 또 한번 감사합니다.

제2의 인생을 살면서 그 옛날을 잠시라도 그리워할
 수 있게 클래를 내 주신 여성시대에 감사하면서
 페를 놓을까 합니다.



여성시대 사진방



[9409] 저는 5학년 8반 남성입니다. 요즘은 식집사로 살고 있어요. 아침저녁으로 가위질에 분갈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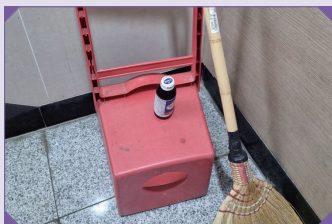
[9648] 어제 기업은행에 가서 월간 여성시대 가져왔어요. 신춘편지쇼 특집 엄청나게 기대됩니다.



[0771] 저는 배우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 단역배우입니다. 교도소 죄수복으로 시골 슈퍼에 갔다가 동네 분들에게 오해를 사기도 했고 가마꾼 3 역할을 하다 종일 가마를 들어서 손목이 시큰거리기도 했네요. 대기하는 시간도 길고 힘들고 고되지만 제가 자랑스럽습니다.



[2444] 지난 주말 부모님의 농사일 도와드리고 왔습니다.



[1604] 계단 청소하는데 빗자루질해 놓고 걸레 밀고 내려오니 어느 분이 음료수를 쓰러받기에 올려놓고 가셨네요.



[5752] 성남에 있는 니트 회사입니다. 여성시대 잘 들고 있어요.

오늘의 추억

글/그림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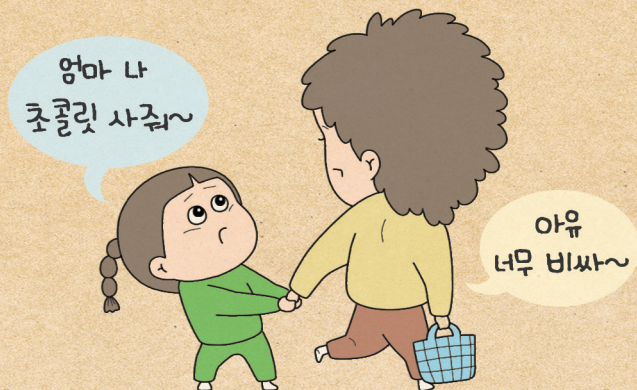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의

여성시대 가족 최해주님이

보내주신 사연을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어릴 때 엄마가 비싸다고
잘 안 사주던 알파벳 초콜릿을,



입에 가득 털어 넣을 수 있는 지금이 행복하다.



이것보다 훨씬 더 비싼 초콜릿이
얼마든지 많다는 것쯤은 알고 있지만
내 마음속 가장 고급스러운 초콜릿을
녹여먹지도 않고 씹어 먹는 이 삶이 좋다.

엄마 아빠도 함께 먹는다던
전설의 황금통 아이스크림

더 먹고 싶다...



냉동실 깊숙한 곳에 숨겨 놓고
오늘, 내일 그리고 모래
조금씩 조금씩 아껴 먹곤 하던 나는



이젠 커다란 통을 한 아름 꺼안고
마음껏 밥 수저로 푹푹 퍼서 먹는다.

한 겨울에도 변기에 앉자마자



엉덩이를 타고 흐르는 얼음장 같은 기운에
등줄기가 오싹하지 않아도 되어 행복하다.



작지만 별거 아닌 것들이
나 이 정도면 잘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행복이란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에 있다.



국내 최초로 생명과학 기자재 국산화에 성공하다

IBK기업은행 진접지점 거래고객

(주)에스피엘 허상오 대표

글 | 문수민(자유기고가) 사진 | 이동진

(주)에스피엘은 국내 최초로 고분자 플라스틱 표면처리 기술을 개발하여
국내 연구실에서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생명과학 기자재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하였다. 현재 500여 종에 이르는 생명과학 분야의
연구용 플라스틱 제품을 개발하여 랩웨어(Labware)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으로 성장하였다.

에스피엘은 생명공학 연구용 기자재 및 정밀기기 제조업체다. 허상오 대표는 1987년 창업해 금형 제작 및 사출 사업을 하다가 1996년 세포배양 용기 개발 분야에 뛰어 들었다.

“창업한 후 처음에는 금형 사출을 하다가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생각에 세포배양 용기 개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당시 국내에서 사용

하는 세포배양 용기가 전량 수입된다는 얘기를 듣고 개발을 시작했죠. 아무런 사전 지식 없이 독학으로 공부하면서 기술 개발에 매진하였고 2년 만에 국내 최초로 세포배양 용기에 적용되는 플라스틱 표면 처리 기술 개발에 성공하였습니다.”

허상오 대표가 개발한 플라스틱 표면 처리 기술은 물방울을 떨어뜨리면 동글동글 물방울이 맺히는 보



Good to great SPL



통 플라스틱과 달리 플라스틱 표면에 세포나 물이 붙어 짝 퍼지게 하는 기술이다.

기술 개발의 과정은 말 그대로 맨 땅에 헤딩이었다. 허상오 대표는 지식이 전무한 상태에서 무작정 플라스틱과 생명과학에 관한 서적을 사서 한 자 한 자 공부하며 연구를 계속했고 개발에 성공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기술 개발에 성공했지만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살던 집까지 담보 잡힐 정도로 자금이 많이 필요했다. 세포배양 용기 종류가 무척 많았는데 돈이 마르면 개발하고 금형 제작을 하면서 구색을

갖추었고 이듬해 영업을 시작했다.

이때 또 한 번 난관이 발생했다. 시장에 진입하기가 무척 어려웠다. 당시 국내 연구실에서는 대부분 미국에서 수입한 제품을 사용했는데 국산 제품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던 와중에 IMF 사태가 발생했고 이것이 에스피엘에 뜻밖의 기회를 가져다줬다.

“IMF가 발생하면서 기업이나 학교에서 연구비를 줄이다 보니까 수입 제품보다 저렴한 국산 제품을 찾더라고요. 당시 연구비 절감 차원에서 우리 제품을 쓰기 시작했는데 가격은 더 저렴하고 제품력에 차이가



없으니까 이후에도 계속 저희 제품을 쓰는 곳이 많아졌어요.”

현재 에스피엘은 높은 기술력과 제품력을 인정받아 전 세계 60개국에 수출하고 있고, 세포배양용, 분자생물학용, 식물배양용, 곤충사육용, Handling&Storage 등 다양한 제품을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하고 있다.

허상오 대표는 기업을 운영하며 가장 어려운 점으로 인력난을 꼽았다. 최근 코로나 사태 때에도 인력 부족으로 인해 제품 납품에 어려움을 겪었다. 무엇보다 새로운 제품 개

발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개발을 해야 하므로 양질의 연구 인력이 많이 채용됐으면 하는 바람을 나타냈다.

“사람들의 가장 큰 소망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잖아요. 어떤 세포를 연구하거나 치료제를 개발할 때 실험을 위해 우리 제품이 가장 처음에 쓰이기 때문에 사명감을 갖고 있어요. 앞으로 생명과학 분야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제품을 개발해 세계에서 최고의 기업이 되고 싶습니다.”

IBK기업은행 진접지점 이대범 지점장은 “에스피엘은 생명과학 분야



의 최첨단 제품 개발을 통해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명성을 얻고 있는 랩웨어 분야의 선도적 기업”이라며 “세포배양 용기를 최초로 국산화하여 국가적으로도 큰 이득을 창출하였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외

국계 회사에서 오퍼가 있음에도 개인의 이익보다 사명감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대표님을 위해 국책 은행으로써 어려울 때 항상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IBK기업은행 진접지점 이대범 지점장(왼쪽)과 (주)에스피엘 허상오 대표

❶ (주)에스피엘 허상오 대표의 운영 노하우

1. 블루오션 시장을 개척하라.
2. 끊임없이 연구·개발하라.
3. 사명감을 갖고 일하라.

(주)에스피엘

대표 허상오
전화 031-533-4800

주소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금강로2047번길 26
홈페이지 <http://www.ispl.co.kr/>



여성의 전 생애 건강을 책임지다

IBK기업은행 춘의테크노지점 거래고객

연세사랑모아여성병원 이흥중 대표

글 | 문수민(자유기고가) 사진 | 이동진

연세사랑모아여성병원은 분만센터, 산후조리원, 소아청소년과,
여성질환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최상의 서비스와 끊임없는
혁신을 바탕으로 여성이 전 생애에 걸쳐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연세사랑모아여성병원은 2007년 개원한 산부인과 병원이다. 분만 센터뿐 아니라 분만 후 산모들의 건강과 아기 케어를 도울 수 있는 산후 조리원을 운영하고, 최근 줄줄이 폐원하여 우려를 낳고 있는 소아청소년과와 여성질환 치료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연세사랑모아여성병원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고전적인 분만법뿐 아니라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만법을 도입해 왔다. 특히 최근 자연주의로 변화

하고 있는 우리나라 출산 트렌드에 따라 의료진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산모의 자연적인 출산 에너지를 사용하는 ‘신자연주의 출산법’을 기반으로, 르바이에 분만법, 캥거루케어, 가족분만 등 엄마와 아기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원칙에 따라 분만을 진행하고 있다.

“저희 연세사랑모아여성병원은 산모와 아기 모두에게 출산이 불편함과 두려움이 아닌 생애 가장 감동적인 경험이 되도록 돕고 있습니다. 풍부한 경험과 최상의 의료기술을



가진 의료진들이 건강한 아기를 안전하게 품에 안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여성질환 환자가 늘어남에 따라 하이푸 장비와 다빈치 로봇 수술 장비 등 최신 의학 장비를 도입하여 하이푸·로봇수술센터를 열었다. 2016년 도입된 하이푸 장비는 초음파 근종 치료 장비로, 수술 시 절개하지 않는 비침습적 수술이 가능하여 회복이 빠르고 흉터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2022년 도입된 다빈치 로봇 수술은 절개는 최소화하면서 최대 10배까지 확대되는 3D 고해상 카메라로 정교하고 세

밀한 수술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회복이 빨라 입원 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흉터와 출혈을 최소화할 수 있다. 특히 기존에 자궁을 적출해야 했던 선근증 질환 시 자궁을 보존하는 선근증 절제 수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그뿐만 아니라 자근근종, 난소낭종, 자궁내막증, 골반 탈출증 등 다양한 질환에서 다빈치 로봇 수술이 가능하다. 연세사랑모아 하이푸·로봇수술센터는 시술 후 경과를 꼼꼼하게 관찰하고 하이푸 시술 이후 임신과 출산을 할 경우 전담 케어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환자들의 치료 후 관리



까지 철저히 책임지고 있다.

“환자를 가족같이 생각하라’가 저의 병원 운영 철학입니다. 특히 의학적 지식으로 판단이 애매할 때는 항상 나의 가족이라면 어떻게 할까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의료 방침이 정해져 있더라도 환자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약을 쓸지, 어떤 수술 방법을 적용할지, 자연분만을 할 것인지, 제왕절개를 할 것인지, 매번 고민하고 환자를 위한 최상의 선

택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홍중 대표는 세계 최저 출산율을 가진 나라에서 산부인과 의사로서 사명감을 갖고 일하고 있다. 출산율 최저의 대한민국에서 산부인과를 원활하게 운영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매년 병실을 늘리고 새로운 의료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환자들을 위해 의료 환경을 향상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IBK기업은행 춘의테크노지점 강희전 지점장은 “IBK기업은행과 연세사랑모아여성병원은 의료사업자 전용 대출 상품을 통해 서로 도움이 되는 상생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연세사랑모아여성병원은 초저출산 시대에 산과 시스템이 붕괴되지

않도록 실력 있는 의료진과 한발 앞선 의료 시스템을 갖추고 일선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칭찬했다.

여성의 소중한 인생 여정을 함께 하는 연세사랑모아여성병원이 앞으로 더욱 신뢰받는 병원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



IBK기업은행 춘의테크노지점 강희전 지점장(왼쪽)과 연세사랑모아여성병원 이홍중 대표

! 연세사랑모아여성병원 이홍중 대표의 운영 노하우

1. 환자를 가족처럼 생각하라.
2. 병원 환경 개선에 힘써라.
3. 새로운 의료서비스를 발 빠르게 도입하라.

연세사랑모아여성병원

대 표 이홍중
전 화 02-2636-1122

주 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앙로 100, 3~5층
홈페이지 <http://www.sarangmoa.co.kr/>

요즘 내가 빠진 것

[3293] 요즘 요리학원에 다니는데요. 요리 선생님께 꼭 빠져있어요. 저는 조금 하나를 뿌리더라도 생각을 몇 번이고 하게 되는데 선생님은 거침없으세요. 척척척 뿌리고 손질하고 카리스마 넘치세요. 열심히 배워서 저도 요리왕이 곧 될 것 같아요.



[2896] 20년 같이 산 부부입니다. 그동안에 그렇게 싸우며 살았는데, 1년 반 전 귀농을 하고부터는 365일 붙어 다닙니다. 한시도 떨어지지 않은데, 잉? 더 달달한 부부가 되었습시다. 싸우지도 않고 서로 배려해 가며 20년 동안 생전 잘 안하던 사랑한다는 말도 하는 신랑, 요즘 사랑스러운 신랑에게 빠져 있어용~ 여봉봉 사랑해~.

[2892] 요즘 제가 빠져 있는 건 아이스크림 라떼요. 진한 라떼에 달콤한 소프트아이스크림의 조화가 세상 너무 달달해요.

[1966] 고2 막내아들한테 꼭 빠져 있어요. 아들이 “재란 씨~” 부르며 절친이라고 말해주는 스윗한 아들을 보면 힘든 일이 다 사라지고 행복해져요. 지금은 여친이 없어 더 스윗하네요. 여친 생기기 전까지 즐겨야죠.

[김지연] 저는 요즘 남편이랑 차박에 빠졌어요. 차를 개조하는 남편을 이해 못했는데 막상 해보니 집에서 자는 거랑 차원이 다른 거예요. 숲속에서 전구 켜고 우리 둘만의 보금자리처럼 아늑하고 남편이 해주는 라면, 스테이크, 부대찌개의 다양한 음식들. 아~ 이전 제가 더 빠져서 주말만 되면 더 난리랍니다.



[0936] 얼마 전 아내를 졸라 집에 수족관을 설치했어요. 9살 아들이랑 저녁마다 수족관 앞에 앉아 물멍을 하고 있으면 하루의 피곤함과 스트레스가 싹 사라진답니다.

[최태영] 내가 빠진 것. 아내 말로는 내가 나사가 빠졌다는대요.



82 MZ세대 며느리의 소비 철학

84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87 나를 보고 웃어주는 아이

91 여성 택배기사의 고충

94 정직을 알려주신 과일 사장님

97 '시스템 오류'

101 이식 병동 914호

104 예순넷의 도보라이더

109 어색한 사이



Letter 01

MZ세대 며느리의 소비 철학

전미정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고 소한 깨소금 냄새가 솔솔 풍기는 아들 내외의 신혼집에 다녀왔다. 부모 손을 거의 빌리지 않고 대출만 조금 받아 들어 급매로 나온 35평 아파트를 마련했다.

여기저기 묻고 따져가며 인테리어 업체를 골라 한창 공사 중인 건 알았는데 어떻게 신접살림이 들어오고 어떤 콘셉트로 새로 단장했는지 한 번도 가보지 않아 무척 궁금하던 참이었다.

신혼집 현관문에 들어서는 순간, 입구부터 “와~” 하고 탄성이 절로 나왔다. 아늑하고 분위기 좋은 카페에 온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잘 꾸며 놓았는데, 전등 스위치 커버는 무명천에 웨딩사진을 날염으로 새겨 앙증맞게 달아 놓았다. 정성이 잔뜩 담긴 커튼과 소품을 보니 며느리의 탁월한 미적 감각에 절로 ‘엄지척!’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중에서 MZ세대 신혼부부와는 겉맞지 않은 고풍스러운

장식장과 화장대가 눈에 띄었다.

“이건 좀 생뚱맞은데?”

“그건 중고마켓에서 단돈 몇 만 원에 산 거예요.”

속으로 적잖이 놀라면서도 ‘며느리가 신혼살림이라고 해서 무조건 새것만 고집하지는 않는구나. 알뜰하고 합리적인 소비를 할 줄 아는구나’ 싶어서 흡족한 마음이었다.

가만 살펴보니 기능과 위생이 있어야 하는 전자제품이나 침대, 소파, 식탁을 제외하고 중고로 구입한 물건이 많다.

베란다에서 여러 화초와 교감하고 창밖 뷰를 감상할 수 있도록 놓은 미니 탁자와 의자도 중고마켓에서 구입한 제품인데 어찌나 찰떡같이 조화를 이루고 멋진 분위기를 자아내는지 감탄이 절로 나왔다.

결혼 전에도 며느리는 제 나이 또래에 비해 저축을 많이 해두었는데 요즘 추세에 따라 신혼집 마련 비용과 모든 혼수를 양측이 반반씩 부담하는 반반 결혼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며느리의 알뜰한 소비와 합리적인 경제관념 덕분이란 걸 느낄 수 있었다.

그러면서도 신혼여행에서 돌아올 때는 시어머니인 내게 명품가방과 스카프를 통 크게 선물할 줄 아는 과격한 소비 패턴을 가진 며느리이기도 하다.

나름 잘 키운 아들과 이렇게 능력 있고 현명한 만며느리를 얻었다. 그리 길지 않은 인생에서 이만하면 내 인생 절반은 성공한 삶이 아닐까 싶다.

Letter 02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김선미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저는 3월부터 어린이집 조리사로 일하고 있는 새내기 조리사입니다. 크고 작은 실수가 잦아서 원장님께서 저를 부르시면 초긴장입니다.

밥통 취사 버튼을 안 눌러서 밥을 푸려고 하는데 밥이 아닌 쌀이 밥통에 있었던 적도 있고 아기들은 참외씨를 빼고 줘야 하는데 참외씨까지 같이 잘라서 참외씨만 따로 골라야 했지요.

아직도 조리가 손에 익지 않았는데 아기들이 먹을 음식이다 보니 몇 번 더 씻고 더 완벽하게 익히고 깨끗하게 닦다 보니 출근만 하면 퇴근 시간이 되는 기분입니다. 하루하루가 어찌 가는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깔끔하고 엄하신 원장님께서 “조리사 선생님!” 하고 부르시면 무슨 실수를 했나 하고 며칠 전 한 파마가 퍼지는 느낌입니다.



어제는 퇴근을 준비하는데 원장님께서 저를 부르더니 우리 집 근처에 약속이 있다고 저를 집 앞까지 태워준다고 하십니다. 만원 버스 안 타고 집까지 가서 좋기는 한데 이 어색함은 어찌할까 하는 걱정을 안고 “저야, 감사하지요. 원장님” 하고 원장님 옆자리에 탔습니다.

오늘 원에서 있었던 얘기, 아이들 얘기를 하고 오니 바로 집 앞에도 착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인사하고 뒤돌아서서 휴대폰을 찾는데 아, 휴대폰이 없네요.

제가 다니는 어린이집은 탕비실과 선생님 휴게실 사물함이 같이 있는데 탕비실 정수기 위에 휴대폰을 두고 그냥 온 게 생각이 났습니다. 원장님 차 얻어 탄다고 엄청나게 긴장했나 봅니다.

잠깐 생각했어요. 부모님이 늦게 데리러 오는 아이들이 있어서 7시 30분까지 열려 있는데 휴대폰을 찾으러 어린이집에 갔다 와야 하나

아니면 내일 출근하면서 찾아야 하나.

안 그래도 요즘 부쩍 휴대폰만 손에 들고 사는 것 같아서 하루쯤은 괜찮겠지 생각했습니다. 급한 일이 있으면 시댁에서나 친정에서나 내가 전화 안 받으면 남편한테 전화 올 거라는 마음도 있고요. 퇴근하고 저녁밥을 준비하고 늘 바쁘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휴대폰을 보느라 바빴나 봅니다.

갈치를 구워서 저녁밥을 먹고 오렌지를 잘라서 후식으로 먹고 설거지하고 빨래를 개고 빨래를 했어요. 뉴스를 보고 일기예보도 듣고 내일 출근할 옷이랑 양말까지 챙겨 놓았는데 시간이 엄청 많이 남아서 열흘 전에 샀는데 책장 한 번 못 넘긴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습관처럼 휴대폰으로 유튜브도 보고 연예 기사도 봤던 기억 안 나는 의미 없는 시간이 아깝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걱정했어요. 몇 개의 단톡방이 있는데 그 단톡방에 무슨 특별한 일이 있는 건 아닌지, 누군가에게 안부 전화 온 건 없는지, 무관심한 척했지만 어린이집에 두고 온 내 휴대폰을 잊을 수가 없더라고요.

다른 날보다 20분이나 일찍 출근하자마자 휴대폰을 찾았는데요. 제 기억대로 정수기 위에 올려 있었습니니다. 반가운 마음에 휴대폰을 열어 보면서 한참을 웃었습니다. 스팸 문자 2건, 남편 먼 티 산 거 배송 시작했다는 택배 문자 그리고 끝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마음 졸인 제가 너무 우습더라고요. 그동안 휴대폰은 그대로인데 제가 혼자 짝사랑하며 살았나 봐요. 이젠 때때로 잊으며 살아야 할까 봅니다. 휴대폰을 회사에 두고 와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답니다.

Letter 03

나를 보고 웃어주는 아이

이외숙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천로

현 재의 교육복지사 선생님이 아이가 아침을 먹고 오지 않아 복지실에서 아이에게 아침 대용으로 간식을 먹이고 있다고 하며 현준이와 화상 통화를 연결해 줬다.

현준이는 교육복지사인 내가 재작년까지 함께한 아이다. 1년 동안 훌쩍 커버린 아이가 반갑고 사랑스럽다. 얼굴을 보니 가슴이 벅차오른다. 어느 누가 나에게 이렇게 사랑스럽게 웃어줄까? 전화기 속의 아이는 따뜻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며 예쁜 미소를 지어준다.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나서야 한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아버지가 없는 기간 동안 학교와 마을과 지역 기관이 키운 아이다. 아이는 이혼 가정으로 아버지가 2년 동안 수감자여서 27살 삼촌이 보호자 역할을 해야 했다.

아버지와 삼촌은 어릴 적부터 부모에게 보호받은 경험이 없었다.

삼촌 역시 보호를 받아본 경험이 없으니 당연히 보호자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밤에 8살 아이가 혼자서 잠을 잤다. 삼촌이 밤에 택배 일을 해서 아이는 방임 상태였다. 아이는 천둥 치고 비바람 부는 날에도 혼자 자야 했다.

이런 날은 나도 잠을 자지 못했다. 아이가 혼자서 얼마나 무서워할까 생각하며 밤새도록 뒤척였다.

다음날 아이는 학교에 오자마자 잠에 빠져서 오전 내내 잠을 잤다. 담임과 나는 저 아이가 어젯밤 번개와 천둥소리 때문에 무서움에 떨며 날이 밝도록 잠을 자지 못했나보다고 안타까워했었다. 아이에게는 집보다 학교가 더 안전한 곳이었다. 밤새 챙겨주는 사람이 없어도 아침에 학교에 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했었다.

아이가 아침에 늦잠을 자서 학교에 못 오는 날이면 직접 집에 가서 아이를 깨워서 데려왔다. 문을 두드리고 이름을 부르면 눈을 비비며 “선생님, 지금 몇 시예요?” 놀라서 일어났다. 밤이 무서워 밤새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다가 지쳐서 잠드는 아이. 그렇게 잠들면서 배터리 충전이 되지 않아 아침에 모닝콜이 안 돼 매번 데리러 가야만 했다.

담임선생님은 등교 시간에 맞춰서 아이를 기다리다가 학교 주변 식당에서 아침밥을 사 먹여서 데려오기도 했다. 각별한 애정을 쏟아부은 담임선생님이었다.

비 오는 날 아이를 깨워 둘이 우산을 쓰고 오면서 손을 살며시 잡으니, 처음엔 부끄러운지 손가락을 꼬지락거리더니 잠시 후에 작은 손이 내 손을 꼭 힘을 주며 잡고 따라왔다.

같은 학년인 1학년 친구들이 엄마 손을 잡고 등교하는 모습을 아침마다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혼자 일어나서 씻고 혼자 옷 입고 혼자 가방을 메고 이 길을 걸어서 학교에 왔을 아이를 생각하니 갑자

기 울켜했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방임 신고를 하였지만 뚜렷한 해결책이 없었다. 심지어 8살이면 혼자 잘 수 있는 나이라는 사례 경험이 부족한 담당자의 답변을 들었을 때의 황당함이란.

학교에서는 아버지가 출소할 때까지 단기 위탁할 곳을 제안하였지만 삼촌이 거절하여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강제로라도 위탁할 곳을 정해서 보내주기를 요청하고 기대했지만 보호자가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 우리나라 아동법이 이렇다.

어른들의 잘못으로 아이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혼자서 방치되어 있었다. 학교 마치고 아무도 반겨주는 이 없는 텅 빈 집에서 혼자 밥을 챙겨 먹고 두려움과 외로움 때문에 밤새도록 TV를 켜놓고 혼자 잠을 자야 하는 대한민국에 또 다른 현준이가 얼마나 많을지.

사례 관리를 하며 지역 연계로 주변 기관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드림스타트센터에서는 학교 급식이 없는 주말에 도시락과 빵을 지원해 주어 먹거리 걱정을 덜고, 아이의 성장에 맞춰 옷을 입히지 못해 체구보다 작은 크기의 옷과 떨어지고 찢어져서 구멍이 난 옷을 입고 다니는 아이의 옷을 처음에는 내가 직접 기워서 입히다가 모 재단의 도움으로 새 옷을 구입해서 입혔다.

주민자치센터에서 집 청소와 정리 정돈을 해주고, 교육복지실에서는 동화책과 혼자 잘 때 무섭지 말라고 걱정 인형과 무드 등을 지원하고, 아침마다 담임선생님과 내가 번갈아 아이를 깨우고 데리러 가고, 저녁에 혼자 있는 시간을 줄여보려고 지역아동센터를 연계하여 학습과 저녁밥을 해결했다.

그러나 작년 초에 아이를 지속적으로 보살펴야 하는 안타까움을

남기고 나는 전보를 하게 되어 걱정을 안고 후임자인 복지사 선생님에게 아이의 사례를 인계하고 왔었다.

2학년 때 담임선생님도 학년이 바뀌지만 아이를 각별하게 살펴보겠다는 말에 조금은 안심이 되었다.

그리고 오늘 1년 만에 아이의 얼굴을 보게 되었다. 아버지가 돌아와도 아이의 처한 환경이나 문제점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가정에서 못 해주는 부분을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아직도 담당하고 있었다.

간간이 아이의 소식을 후임 복지사 선생님에게서 듣고 있다. 후임 복지사 선생님은 아이가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한다.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우리가 잘 챙기고 보살피고 중학교에 가면 그곳 중학교 복지실에 다시 연계하여 아이를 보살피자는 얘기를 나눴다. 교육복지사인 우리는 아이가 혼자서도 세상과 맞서서 당당하게 헤쳐 나갈 힘이 길러질 때까지 돌봐주자, 다짐한다.

그동안의 노력이 부질없지는 않았나 보다. 부모가 제대로 돌보지 못해 원망과 절망감으로 몸서리쳤을 아이가 변화를 보이고, 눈빛에 살기가 돌 정도로 날카롭고 공격적이었던 아이가 저렇게 예쁘게 나를 보고 웃어주고 있지 않은가.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서 저렇게 예쁘게 웃어주는 사람으로 성장하길 바라본다.

끝으로 학교 안에서 힘든 아이들을 위해 오늘도 열정과 희망을 안고 교육복지사로 근무하고 있는 전국의 교육복지사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와 응원을 보낸다.

Letter 04

여성 택배기사의 고충

박은영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한터로

저는 남편을 도와 함께 택배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택배 일을 한지 5년 차예요. 요즘엔 저희처럼 부부가 함께하는 분들도 많고, 여자 혼자 택배 배송 일을 하는 분들도 전보다 많아졌어요. 제 주위에도 그런 분이 몇 분 계십니다.

주위 분들에게 들은 얘기 중에는 여성이라 겪은 일들도 꽤 있어요. 여성 혼자 탐차를 운전해 배송 구역에 들어가 짐 정리를 하고 배송하고 있으면 나이 든 남자가 다가오는 일이 종종 있대요. ‘남편은 어찌고 여자가 혼자 일하냐, 남편은 없냐...’ 이러면서 괜히 집적댄다고나 할까, 그런 일이 있답니다. ‘일 끝나고 커피 한잔하자, 아니면 술 한잔 하자’고 하기도 하고요.

배송비를 간혹 착불로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돈 줄 테니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이들도 간혹 있대요. 물론 들어가지 않고 밖에

서서 기다리는데 안 들어온다고 짜증 내며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심각하면서도 의아한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제가 겪은 일을 소개할게요. 어느 날 저희 배송 구역인 아파트에 들어가 짐들을 수레에 싣고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교복을 입은 남학생 하나가 제 옆에 서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난감했지만 CCTV가 있으니 별일 없겠지 하며 고개를 돌리고 있었어요. 그러다 엘리베이터가 열려 댔는데 어느 순간 그 남학생 손이 제 엉덩이 쪽으로 오는 게 엘리베이터 문 쪽에 비치더군요. “지금 뭐 하는 거니?” 했더니 손을 빼더라고요. 저는 올라가다 말고 중간에 짐을 가지고 내려고 너무 놀라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갔습니다.

그 아파트는 저희 부부가 3년째 들어가는 곳이고 솔직히 어느 집 학생인지 알지만 찾아가진 못했어요. 혹 찾아가 말했다가 배송 구역을 잃을까 싶기도 하고 배송 구역이 곧 수입이라 그냥 참았습니다.

택배 시작한 지 3일째 되는 날 있었던 일도 잊을 수 없어요. 제가 키가 작다 보니 다리도 짧거든요. 그날따라 크고 무거운 물품이 많아 남편이 혼자 싣고 배송 올라가고 저는 탑차의 뒤 짐칸에 올라가 짐 정리를 하고 내려오다가 발을 헛디뎠 떨어졌는데 일어나보니 머리에 서 피가 나고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 불러 근처 병원에 가서 아홉 바늘 꿰매고 꿰맨 자리에 반창고 붙이고 바로 다시 배송 일을 했죠. 늦게 움직일수록 끝나는 시간도 늦어지고 늦어지면 어느 순간 전화기에 불이 나거든요. 언제 오냐고.

그리고 또 한 번은 겨울이었었는데 단독주택에 사는 분들은 집 앞의 눈을 잘 치우세요. 그런데 다세대주택, 빌라나 원룸 건물 같은 곳은 치우는 사람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날 원룸 건물에 배송 올라가

려고 주차장인 1층을 종종 걸어가다가 순간 미끄러져서 뒤로 넘어져 또 한 번 머리를 꺾었네요. 이날은 다섯 바늘 꺾었어요.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데 단지 여자라고 말을 험하게 하는 분도 있고, 배송 가면 속옷 차림으로 나와 받아 가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착불비 달라고 하면 잔돈 없다며 ‘내일 다시 오라’ 해서 다음날 가면 또 ‘내일 와라’ 반복하고, 계좌번호 알려주겠다고 해도 현금으로 주겠다고 계속 내일 오라고 하고. 4, 5천 원을 한 달 뒤에 받은 적도 있습니다.

물론 좋은 분들도 계세요. 쌀이나 농산물 같은 무거운 물품을 배송해 드리면 고생했다며 점심이라도 하라고 만 원을 건네주신 분도 있고, 여름에는 덥에서 아이스크피를 두 잔 타와 시원하게 마시며 일하라고 하는 분, 김밥을 건네주는 분... 힘들고 짜증 나다가도 이런 좋은 분들을 만나면 힘든 건 금세 잊게 되고 웃음이 나더라고요.

하루하루 같은 곳에 배송 들어가지만 겪는 일, 만나는 분들은 조금씩 다르답니다. 마땅히 주차할 곳이 없어서 고민하면 당신 가게 앞이나 집 앞에 주차하라고 허락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남편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일이 재미있더라고요.

고객님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즘 여성 택배기사들도 많아졌으니 여성 남성을 떠나서 똑같이 고생하는 선물 같은 택배 가져다주는 택배기사로 대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Letter 05

정직을 알려주신 과일 사장님

임혜선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저는 지난주 금요일 1교시를 몽클하게 만들어 주신 사장님을 공개적으로 칭찬하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지금 5학년 1학기 도덕 1단원은 '정직'을 배웁니다.

“거짓말 안 하고 양심에 비추어서 사는 게 정직이야!”

이렇게 가르치면 아이들은 “에이... 또 잔소리하네” 하며 한 귀로 흘리지요. 그래서 저는 평소 온몸으로 체득하는 수업, 배워서 써먹는 공부, 고민하는 도덕 수업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얘들아, 착하면 손해 본다 정직하면 호구된다. 이런 말 들어봤니?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잠시 생각할 시간을 갖고 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선생님이 이런 문자를 받았어. <고객님, 죄송합니다. 방울토마토가 급작스러운 기온 상승으로 꺾지가 터져서 도저히 보내드릴 수 없

어서 반품시키고 새로 들어오는 것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처음엔 그런가 보다 했거든. 근데 다음날 또 이런 문자가 왔어. <고객님, 상태는 괜찮으나 요즘 비가 많이 와서 맛이 진하질 못해서 다시 반품 조치하고 좋은 걸로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쭙… 신기하신 분이네’ 하고 기다렸어. 그랬더니 <고객님, 때갈도 좋고 무르지도 않으나 맛이 덜 들어 죄송하지만 발송한 건 회수 후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신기했지.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이렇게 하면 엄청 손해 보실 텐데 싶었거든. 이왕 믿는 거 끝까지 믿어보기로 했어. 그래서 선생님도 <네, 사장님.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답장을 보냈지. 며칠 후 거의 2주 만에 상품이 왔어. 너희가 고객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니?”

“저라면 못 기다려요. 택배는 시간이 생명인데 그리 오래 어찌 기다려요?”

“저는 정직한 분 같아서 기다릴래요.”

아이들의 의견은 분분했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을 던졌습니다.

“너희들이 사장님이라면 어떻게 했겠니? 한 번은 그렇게 회수해도 두 번째는 눈 딱 감고 보내도 되지 않을까?”

아이들은 선불리 답을 내지 못했습니다. 대충 계산해도 몇백은 손해를 봐야 하는 일이니깐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사장님께 드릴 말씀 있는 친구 있으면 여기에 써주면 사장님께 전할게.”

역지로 시키지 않았는데 대부분 아이는 정성껏 사장님께 편지를 썼어요.

<사장님의 정직한 모습에 감동받았어요. 저도 꼭 사 먹고 고객 되겠습니다.>

<이렇게 멋진 모습을 보여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보내고 사장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사장님, 아이들이 사장님의 정직함에 너무 감동했다고 편지를 썼는데 보내드려도 될까요?”

“아이고~ 할 일을 했는데요. 뭘요.”

“근데 사장님 진짜 궁금한 게 있어서요. 굳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저를 믿고 주문해 주는 고객님들께 실망시켜 드리고 싶지 않아요. 이런 사실을 이용하는 고객님들도 계시는데 아이들의 응원 편지를 보내주신다니 계속 이 길을 가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고맙습니다. 힘을 주셔서요.”

통화가 끝나고도 몽클했습니다. 저만 이 사실을 알기 아까워서 자주 가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이런 사장님은 돈줄을 내줘야 한다며 얼른 어디인지 알려달라면서요. 더 신기했던 건 <어머? 지난번 오렌지 공구 했던 곳이네요. 정말 맛있었는데.> <그 사장님이 이번에 격려받으셔서 계속 그 길을 가는 귀한 기회가 되시겠네요.> 이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오늘 그 토마토를 학교에 가지고 와서 아이들과 시식했습니다. 아이들은 세상에서 이리 맛난 토마토가 있다고 묻더라고요.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애들아, 착하면 손해 보고 정직하면 호구가 된다는 말이 맞니?”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당장 손해 보더라도 그 너머를 볼 줄 아는 진짜 정직한 어른으로 사는 것의 가치를 그 사장님이 몸소 알려주셨습니다. 사장님, 지금처럼 살아있는 정직의 모델이 되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동으로 남는 수업을 아이들과 저에게 만들어 주셔서요.

Letter 06

‘시스템 오류’

애청자

저는 앞이 보이지 않는 칠십삼 세 아버지와 올해 아홉 살 아이와 함께 살고 있는 마흔세 살, 한부모입니다. 재산 상태, 현재 가족의 형태, 수입, 근로 여부 등을 파악하여 기초생활수급자라는 복지 제도가 있습니다. 저희 집 재산이라고 해봐야 월셋집 보증금 천만원이 전부이고, 아버지는 근로 무능력이고 아이도 아직 근로 무능력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제가 하루 3~4시간 알바를 하며 생계급여를 지급받으며 생활해 가고 있습니다.

제가 근로 능력이 있기 때문에 9시간 자활을 해야만 기초생활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혼자 식사를 챙겨 드신다거나 혼자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아침을 차려드리고 점심을 테이블에 챙겨놓고 늦은 출근을 하면 아버지께선 어렵게 점심을 찾아드시지요. 그리고 제가 조금 이른 퇴근을 하여 집안일, 장보기



등을 하고 저녁을 차려드려야 합니다. 그 후 저는 늦은 시간에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한 달 벌면 얼마나 되겠어요. 한 달 월세 내면 끝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저 같은 취약계층을 위해 최저생계비라는 제도를 만들어 사람이 살아가는데 최저로 필요한 최저생계비라는 것이 책정되어 있지요. 최저생계비에서 내 일정 부분 수입을 제외한 생계비가 매월 20일 입금됩니다. 이 돈으로 월세, 휴대폰 요금, 등유 구입, 식비만 해도 넉넉하진 않지만 '그래도 생계비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네' 감사한 마음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물론 배달 음식은 시켜 먹지 않고 집에서 식사합니다. 매달 아버지 옷을 사드리거나 아이 옷을 챙겨줄 수는 없지만 계절 바뀔 때 쭉 커버린 아이의 옷, 낡아버린 아버지 옷은 인터넷 최저가를 이용해 구매

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행히 저는 키가 크는 것도 아니니 낡은 옷을 입고 다녀도 상관없습니다. 제 옷을 구매한 지는 한참 된 듯합니다. 화장품류는 거의 체험단이나 이벤트 당첨 상품을 받아서 쓰고요.

이렇게 평화로운 일상만 일어나고 있던 이번 달 20일 생계급여가 입금되지 않은 것입니다. 시스템 오류가 생겨 27일에 연락해 주기로 했던 군청 공무원분이 깜빡하셨는지 연락이 없었고, ‘그래, 바쁘신가 보네. 좀 더 기다려 보자’ 생각하고 29일에 다시 연락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참 전화를 하자니 목소리는 기어들어 가고 생계급여 앞에서는 왜 이리 당당하지 못한지요.

“저가... 저... 지난주에 생계급여 미지급 때문에 연락을 드렸는데 27일에 연락해 주신 댔는데 연락이 없으셔서요?”

“제가요?”

“선생님이신지는 자세히 모르겠어요. 여자분이셨어요.”

“네. 확인해 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잠깐의 시간이 흐르고 조금 전 전화 통화했던 공무원분의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27일에 전화 드리기로 한 게 제가 맞고요. 이번 달 급여는 지급이 안 될 것 같고 다음 달에 소급 적용되어 입금될 것 같아요.”

“다음 달 소급 적용되는 건 확실한가요?”

“그건 지금 급여 담당자분이 부재중이라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기다려 보다 전화를 다시 드렸습니다. 복지 담당자분이 안 계셔서 다시 연락을 드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연락이 와서 “선생님 메모가 남겨져 있어서 저도 내역을 다 아는데요. 20일 지급이 안 되었으면 신규인 분은 말일 날 지급이 되는데요. 선생님은 시

시스템 문제로 20일에 지급을 못 받았고, 신규가 아니라서 말일도 못 받아서 다음 달 20일 소급 적용될 것 같아요.”

“다른 방법은 없나요?”

“네. 딱히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정말 다른 방법은 없나요?”

“네, 선생님~.”

그 말을 너무도 해맑게 하시네요.

월세만 해도 40만 원이고 알바비는 고작해야 60만 원 정도인데 아무리 머리를 굴려보아도 답이 없습니다. ‘그냥 월세 밀리고 다 미납하고 식비로 쓸까? 요즘 아버지 잘 드셔서 식비 만만치 않은데 사이버 대학교 생활비 대출이라도 알아볼까? 아버지 요양 샘 3시간 신청하고 아이 재워 놓고 대리운전해 볼까. 요즘 공사 현장 많던데 일당 인부를 해볼까. 이것도 안전 교육비가 든다고 하는데…. 펜션 청소라도 해볼까?’ 별별 생각을 다 해보았습니다.

아직은 어린아이와 몸이 불편하신 아버지를 두고 장시간 집을 비울 수는 없기에 해결책을 생각해 보아도 뾰족한 답이 없네요. 또 어디다 말할 곳도 없고 친구며 가족들에게 자세히 얘기하려니 그것도 어렵네요.

너무 간편하게 ‘시스템 오류’란 다섯 글자에 저희 집은 생계가 흔들리는 복지 사각지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고작 20일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20일이 지옥이 될 수도 있겠구나 싶고 더 무서운 건 다음 달 20일에 시스템 오류가 또 일어나는 건 아닐까? 겁이 나네요. 어디 도움 요청할 곳도 모르겠고 어디에 얘기할 곳도 없고 답답한 마음에 여성시대에 속풀이를 해봅니다.

Letter 07

이식 병동 914호

김학경 | 경기도 광주시 텃골길

한 달에 한 번 첫째 주 화요일은 인생에 제일 중요한 일정이 되어 버린 외래진료 날입니다. 간이식 받은 지 5개월째. 지난 달 교수님이 CT 검사, 채혈 검사 100점 만점에 100점을 주셔서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한 시간 전에 검사를 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세 번째 순서. 암센터 접수실은 불도 켜지지 않았는데 저보다 먼저 검사를 하고 기다리는 분이 두 분이나 계셨습니다. 기다리는데 갑자기 호명되는 첫 번째 제 이름.

“3번 방으로 들어가세요.”

아, 결과가 안 좋구나 싶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가자, 교수님이 “잘 지내셨어요? 뭐하며 지내셨어요?” 머뭇거리는 저를 보다 결과를 살피더니 검사 결과 곳곳에 빨간 불이 들어왔다고 하셨습니다. 간 수치가 높아졌고 황달 수치도 높아졌다고요. 혹시 술을 마셨는지

아니면 하루 두 번 챙겨 먹는 면역억제제를 걸렀는지, 그것도 아니면 원인을 찾기 위해 바로 입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입원 수술을 마치고 이식 병동인 9층 병실로 가는 데 4인실인 겁니다. 간이식 수술을 받고 면역 때문에 1인실만 써야 했던지라 조금 의아했습니다. 조심해야 하는 기간이 지났으니 괜찮겠지, 싶었습니다. 같은 환자들끼리 모여 있다는 얘기에 입실하게 되었어요.

다들 커튼을 치고 어두침침한 분위기. 이식 병동 다인실은 이렇게 적막한 분위기구나 하고 조용히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간에 제 자리가 화장실 근처라 전 커튼을 살짝 걷고 인사를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짧은 대화 속에 우린 다 같은 교수님께 간이식 받은 환자라는 사실을 알았고 저는 그런 만남이 너무 소중하고 신기했습니다.

한 언니는 이식받은 지 2년, 한 동생은 간이식을 두 번 받은 상태, 직접적으로 간이식 받은 분들을 본 적이 없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인터넷 사이트에 묻곤 했는데 이렇게 앞에서 생생한 얘기를 들으니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더라고요.

2년 된 언니는 궁금증 가득한 저에게 커튼을 열어젖히며 마음을 열어주셨고, 그 옆에 어린 동생은 남편이 간병인으로 있어 천천히 다가가다 얘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 병실은 어두웠던 분위기에서 환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커튼을 모두 걷고 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론상으로 이식 후 조심해야 할 것을 배운 것과 경험에서 나온 얘기는 다른 부분도 많더라고요.

또 위험의 순간들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친오빠에게 생체 간이식을 받은 동생은 거부반응을 일으켜 다른 간을 또 한 번 이식받

게 되고 그 과정에서 패혈증이 와서 수술한 지 1년 가까이 병원 생활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 동생을 바라보는 교수님 눈빛은 가장 아픈 손가락을 바라보는 애처로운 눈빛이었습니다. 창밖만 바라보는 그 동생은 저를 보며 제일 하고픈 게 걷는 거라고 언니가 부럽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아무 소리를 못 하겠더라고요.

사뭇 화기에애한 분위기 속에 저는 간 조직 검사를 받고 스테로이드제 투여를 하며 상황을 지켜보았는데, 다행히 일시적인 거부반응 증상으로 나와 퇴원 날짜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의 치료 기간 동안 그 동생만 그 자리인 채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수여자뿐만 아니라 간이식을 기다리는 환자까지 여러 환자를 2주 동안 보면서 늘 부모님이 저는 기적이라며 남들보다 회복이 좋았다고 말해 주실 때 “나도 아프다고, 치료를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아팠다고” 투정 부린 저 자신이 너무도 부끄러웠습니다.

저도 앞으로 평생 관리해야 하는 몸이지만 저는 그래도 나은 편이었습니다. 아파하고 회복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 그 기적 널리 은혜 베풀며 살라는 교훈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내가 그 병실을 생각하며 글 쓸 때도 본인도 회복되길 꿈꿨던 동생, 수여자가 나타나길 기다리는 환자분, 이식받고도 늘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모든 분이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회진 시간 지나고 동생이랑 잠깐 둘이 있으며 노트북으로 여성시대를 들을 때 동생이 볼륨 좀 크게 해달라고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동생 힘내~ 은행 들러 여성시대 책자 가져다줄게.”

Letter 08

예순넷의 도보라이더

애청자

작 년 추석쯤 예순넷의 나이로 배달앱 도보 배달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신 엄마의 사연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가정주부로 또 손녀를 돌보는 황혼육아로 동네 밖을 벗어날 일이 없었던 엄마의 일상에 활력이 되어 주었던 배달 아르바이트 사연이요.

엄마가 배달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신 지 어느덧 7개월이 흘렀어요. 요즘도 눈썹을 휘날리며 배달다니십니다. 휴대폰에서 울리는 '추천'이라는 알림에 온 신경을 기울이시면서요.

사실 엄마가 무릎 연골 부상으로 11월부터 세 달 동안 배달을 쉬셔야 했어요. 그때 참 많이 우울해하셨습니다. 지금은 다행히 회복하고 다시 배달을 시작한 지는 얼마 되지 않으셨어요. 재활 겸 운동 삼아 슬슬 배달을 시작하신 엄마께 기운을 드리고자 사연을 보내봅니다. 엄마가 배달하며 생긴 재밌는 에피소드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규동 사건! 늦가을의 어느 날, 엄마는 여느 때처럼 조카를 어린이집에 보내 놓고 집 청소를 하며 휴대폰에서 울리는 배달 알람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웬일인지 평소와 달리 배달이 잘 들어오지 않았고, 점심때가 되어 엄마는 밥을 비비고 있었다고 해요. 그때 울리는 배달 알람 소리. 규동 집에서 온 알람이었습니다. 엄마는 즉시 배달 요청을 누르고 비비던 밥을 내팽개치고 툴루랄라 배달을 나갑니다. 맘먹고 운동하기는 그렇게 힘든데 배달 알람 소리만 들으면 배도 안 고프고 없던 기운도 생겨나신대요. 부리나케 걸어가 규동 가게에서 무사히 규동을 받은 엄마는 배달지인 아파트 2702호 앞에 능숙하게 배달을 완료하고 배달 완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던 엄마는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발신자는 배달앱 본사였고요. 뭔가 큰 잘못을 저지른 것 같다는 직감에 엄마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고 말았어요. 본사에서는 주문자로부터 규동 배달을 받지 못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배달은 취소 되었고 규동값은 엄마가 물어야 했죠.

평소에 책임감이 끝장나게 강한 엄마는 연신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하며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사실 돈을 물면 그걸로 끝인데 엄마는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해 다시 배달지로 이동했다고 해요. 자꾸 느 낌상 26층에 배달했다는 생각이 들더라요. 아니나 다를까 규동은 27층이 아닌 2602호 앞에 얌전히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규동을 배달 하면 버는 돈이 2,900원인데 규동값 13,500원을 물게 되었죠.

“규동 시킨 사람이 얼마나 황당했겠어. 게다가 배달 다섯 개를 해야 벌 수 있는 돈을 실수 한 번으로 날렸지, 뭐니.”

엄마가 하도 자책하기에 제가 말했어요. 배달하는 사람들 누구나 실수한다고, 실수 한 번 안 한 배달부는 없을 거라고. 엄마는 제 말에

도 별로 위안을 받지 못하는 듯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뜻밖의 천운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날 저녁, 엄마가 고스란히 들고 돌아온 규동은 퇴근한 형부의 저녁밥이 됩니다. 원래 같으면 엄마, 아빠, 언니, 형부, 조카 모두 모여 함께 저녁밥을 먹었을 텐데 그날은 처리해야 할 규동이 한 그릇 생겼으니 그걸 형부가 먹게 된 거죠.

그리고 다음 날, 형부의 컨디션이 심상치 않았습시다. 몸이 으슬으슬 춥고 코가 막히고 미열이 있어 검사를 해보니 코로나19였습니다. 다른 가족들이 그 소식을 접하자마자 다들 키트로 코로나 검사를 했습니다. 네 살 난 조카가 가장 걱정이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가족들은 모두 음성이었습니다. 확진자인 형부가 홀로 규동을 먹은 덕분에 가족들 모두 코로나 감염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엄마는 그제야 자책하는 마음을 내려놓은 듯 보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옹지마 아니겠어요? 참, 인생 한 치 앞도 몰라요.

또 다른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엄마가 말한 꿀 배달 몇 가지가 있어요. 커피, 빵, 아이스크림, 샌드위치가 그것인데요. 일단 간단하고 부피도 작고 가볍고 부담 없잖아요. 그날도 역시 배달앱에서 ‘추천’이라는 알림을 듣고 머리를 감던 엄마는 시린 눈을 뜨고 앱을 확인합니다. 그러고는 ‘커피’라는 단어를 보고 재빨리 ‘배달 요청’ 버튼부터 누르셨지요. 비누 거품 때문에 아마 눈을 제대로 뜰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고는 후다닥 행구고 배달에 나섰죠.

대용량 커피로 유명한 커피집이었습니다. 그런데 배달 찾으러 왔다는 엄마의 말에 직원이 가리킨 것은 커피 스물네 잔, 그러니까 대용량 커피 스물네 잔이 포장된 박스였대요. 게다가 얼음까지 든 아이스. 주문 내역을 살펴보니 배달지는 한 고등학교. 보충수업을 하던 고등학



생들이 배달을 시킨 것이지요. 배달비는 한 잔이나 열 잔이나 스물네 잔이나 똑같이 2,900원이었고요. 물론 배달을 취소하면 됩니다. 하지만 엄마는 그때 배달을 취소하는 법을 모르셨어요. 취소 방법이 무척 까다롭거든요. 엄마에게 취소 방법을 설명해 준 적이 있긴 했습니다. 그런데 당황한 엄마는 취소 방법을 기억하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취소가 물 건너간 스물네 잔의 커피를 어떻게 배달해야 할지 몰라 발만 동동 굴렀대요. 직원에게 혹시 커피를 신고 갈 수레가 있냐고 묻자 있긴 있는데 분실 위험이 있어 절대 빌려줄 수 없다고 하

더래요. 그런데 그걸 수레 없이 어떻게 가져갈 수 있겠어요? 엄마는 겨우겨우 직원을 설득했고 마침내 수레를 빌릴 수 있었습니다. 엄마는 빌린 수레에 아이스 대용량 커피를 싣고 십 분 거리의 고등학교까지 가셨대요. 엄마 말로는 팔이 빠지는 줄 알았다고 해요. 겨우겨우 도착한 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엄마는 주문자를 하염없이 기다렸습니다. 원래는 배달지에 도착하면 완료 버튼을 누르고 가버리면 그만인데 커피를 누가 들고 가야 수레를 가지고 갈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한 참을 더 기다려 커피를 시킨 학생들에게 스물네 잔의 커피를 전달하고 엄마는 다시 빈 수레를 끌고 그 피곤한 몸으로 집에도 가지 못하고 커피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죽히 한 시간은 넘게 걸렸을 거예요. 엄마는 제가 여러 번 알려줘도 잘 기억하지 못했던 배달 취소 방법을 그날의 뼈아픈 경험으로 익히게 되셨죠.

그날 대용량 커피 배달 사건 이후로 엄마는 머리를 감을 때는 절대 배달 요청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뭐든 경험만큼 뺏속 깊이 각인되는 배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셨대요. 자주 가는 한 피자집 사장님은 엄마를 보며 항상 ‘어머니’라고 부르며 대단하다고 엄지를 치켜 세워주고, 한 카페 사장은 엄마를 알아보고는 배달하다 힘들 땀 언제든 쉬어가라고 의자를 내어주었다고 해요. 그리고 가게 앞에서 마주치는 또 다른 라이더들과도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셨대요. 아들 같은 배달부가 건네준 다정한 말을 두고두고 얘기하며 배달 다니는 일이 참말로 재미있다고 하십니다.

배달을 나가 음식을 직접 건넬 때면 꼭 웃는 얼굴로 “맛있게 드세요”라고 말하는 엄마. 두려움 없이 하나씩 배워나가는 엄마의 모습을 보며 제가 왜 이렇게 뿌듯할까요. 저희 엄마 정말 멋지시지요!

Letter 09

어색한 사이

박미연 | 대전광역시 서구

토 요일이었다. 바둑을 배우고 있는 우리 집 두 아이의 대회가 있는 날이기도 했다. 두어 시간이 걸릴 예정이라 남편과 단둘이 그 주변에서 아이들을 기다렸는데 아이들이 태어난 후 남편과 단둘이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던 터라 어색했다. 상당히 어색했다.

“칼국수?” 건너편 건물의 칼국수 가게를 가리키며 남편이 말했다.

“그렇까?” 남편의 발은 나의 대답과 동시에 움직였다. 워낙 급한 성격의 남편이다.

칼국수집은 진한 육수가 ‘맛집’인 것 같긴 했는데 남편과 단둘이 너무 조용하게 먹다 보니 절반도 못 먹어서 물리기 시작했다. 같은 동작을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이렇게 연속적으로 해본 것이 얼마 만인지. 밥만 먹는 일이 이렇게 지겨울 수 있다니 어이가 없었다.

옆 테이블에선 아이들을 챙기느라 정신없는 어느 단란한 가족의

풍경이 아주 낮익게 펼쳐졌고, 남편과 나는 여유롭게 그러나 좀 허전한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계산서를 들고 카운터로 향했다.

시계를 보니 고작 20분이 지났다. 1시간 40분이나 남았는데 또 무얼 하나… 도심 한복판에 서서 우리는 고민에 빠졌다. 잘 꾸며진 커피와 디저트 가게들이 참 많았다. 가게 밖에 있는 메뉴를 보는데 큰아이가 좋아하는 민트 초코가 눈에 밟혔고 막내가 좋아하는 쿠키들에 자꾸만 눈이 갔다.

“그냥 걸을까?”

차마 아이들 없이는 이런 곳에 발을 들일 수 없다고 생각하는 찰나, 남편 생각도 비슷했던 모양이다.

아이들이 태어나고 우린 네 명이 항상 세트로 움직였다. 어찌다 가게 된 카페에서도 아이들이 고른 메뉴에 남편과 나는 커피만 더할 뿐 무엇이 맛있는 디저트인지 생각할 필요도 없이 아이들 입맛을 따랐다. 그마저도 온전한 것이 내 입에 들어오는 상황은 거의 없고 남겨진 것이나 물끄러미 바라보는 나의 입속으로 아이들이 넣어준 일부를 맛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말이다.

“없는 것이 없고 있을 것은 다 있다는 가게에나 갈까?”

그 가게는 막내가 좋아하는 곳으로 막내의 표현을 빌린 것이었다. 남편도 나의 제안에 수긍해 그곳으로 향했다. 그곳 외에는 별달리 갈 데가 없기도 했다. 그렇게 또 10분이 흘렀다. 이제 남은 시간은 1시간 30분. 다행히 가게는 3층까지 물건들로 가득했다. 볼거리가 많다는 것은 정말로 다행한 일이었다.

나는 아주 천천히 물건들을 구경했다. 정확히 55분을 고르고 고른 것이 아이들 젤리 과자 두 개와 식탁 의자 다리에 끼우는 층간 소음 방지용 이름 모를 제품 몇 개였다.

“나가자.”

워낙 쇼핑을 오래 하지 못하는 성격이자 급한 성격의 소유자인 남편은 1층에서 3층까지 오르락내리락하다 결국 나를 재촉하고 말했다.

그 가게에서 나와 우리는 아이들이 있는 건물로 들어섰다. 엘리베이터를 패스하고 계단을 이용해 한참이나 올라갔다. 그렇게 5분을 소비했으니 이제 딱 30분만 버티면 될 터.

그리고 그렇게 복도로 향한 순간, 나는 보았다. 우리보다 미리 와서 기다리던 수많은 아빠 엄마를... 그리고 비단 어색한 사이는 우리 부부만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도 우리만큼이나 할 일도 없고 갈 데가 없었는지 다들 먼저 와서 말없이 서 있는 모습에 피식 웃음이 났다. 남편도 어색한 웃음을 짓고는 또다시 휴대폰의 시계를 보았다. 드디어 시간이 다 지나간 것이다!

하나둘 아이들이 빠져나온다. 동작 빠른 우리 집 막내도 나온다. 진중한 우리 큰아이도 나온다. 아이들은 재잘거린다. 쉴 새 없이. 그 시간을 어찌 참았을까. 아이들의 이야기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을 바둑대회가 눈앞에 그려진다.

드디어 우리 네 명이 다시 한 세트가 되어 걸음을 시작한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그래도 넷은 자석처럼 붙어 있다. 집으로 향하다 드라이브나 할까 하는 나의 말에 “맛있는 거!” 외치는 아이들, 남편은 이미 운전대를 우리가 자주 가던 맛집으로 돌리고 있다.

아까 산 젤리를 언제 보았는지 내가 꺼내기도 전에 아이들은 찾아내 포장지를 뜯고 뜯다가 사방에 쏟고 서로 더 먹겠다고 싸우고, 남편은 운전에 방해된다고 소리 지르고. 아, 나는 진한 커피 한 잔도 못 마신 좀 전의 그 여유로웠던 시간이 살짝 아쉬워진다. 아아, 사람의 마음이란...



작별과 도전

양희은 | 여성시대 진행자



4월 마지막 주부터 5월 첫째 주까지 4년 만에 휴가를 계획하고 담당 PD에게 휴가 신청을 했다. 우리 부부 둘이서는 엄두도 못 낼 세계문화유산과 산티아고 순례길이 교차하는 (보통의 관광지じゃ 아닌) 일정인 데다 그 나라 말을 못 해서 패키지 따라가니까 일정 조정이 불가한 상태였다. 81년 혼자서 유럽 배낭여행할 때도 가보고 싶었던 바스크지역, 북부 스페인은 나의 선망이었다. 모처럼 짐 싸기 리스트를 챙기면서 (나는 가방 꾸리기에 진심이다) 책도 읽고 꿈에 부풀었다.

그리고선 한 열흘인가 지났나? 새 프로그램 섭외를 받은 여성시대 옆 지기의 해외 녹화 일정이 내 휴가와 겹치면서 난감해졌다. 두 진행자가 동시에 자리를 비운다?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니었다. 1975년 ‘여성살롱’ 시작부터 지금까지 이런 일이 있었는가?

또한 진행자 서경석의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여성시대와의 작별이 불가피한 상황이란 걸 알게 되었다. 8년 동안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가 생각을 실천으로 옮기는데 최고수라는 걸 잘 알기에 붙잡을 생각은 못 했다. 아니, 안 했다. 어련히 알아서

잘하랴. 어떤 도전을 하든지 응원하기로 했다.

사실 진행자 두 사람의 어린 날은 교집합이 꽤 많다. 무너진 집안 형편과 혼자 세상을 향해 내딛는 걸음걸음이 얼마나 무섭고 겁이 났을까? 초등학교 때 대전역에서 신문을 팔던 어린아이 (금세 그만두었다지만), 스스로 자기에게 힘을 주는 추임새가 가끔 내 가슴을 찌잉~ 울렸다. 이 친구 이렇게 혼자서 견디며 살아왔겠구나 싶어서다.

수석으로 들어간 육사를 결연히 자퇴하고 재수해서 서울대에 입학하고 그리고 기숙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가리지 않고 찾아서 하며 리더십을 발휘했단다. 그때의 서경석을 그려 보면 대견해 보였다. 여성시대 떠난 일도 육사 그만둘 때만큼 큰 결단이었겠지 싶었다.

그는 마지막 날까지도 나를 잘 부탁한다며 떠나는 깔끔한 매너를 보였다. 예의 없는 걸 죽을 만큼 못 견뎌 했다.

조출한 감사패를 전달하며 서경석을 환송하는 자리에서 우리의 노 작가 박금선은 “서경석 씨가 제 동생이었으면 정말 좋았겠다 싶었어요. 누나에게 막 용돈도 주고, 집도 사주고,

운전 못 하지만 차도 사주지 않았을까요? 청취자들한테도 그런 동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송사를 했고 이어진 서경석의 답사는 “라디오 식구들과 맺은 인연은 평생 못 잊을 거예요. ‘회자정리’ 만나면 이별이 있기 마련이요, ‘거자필반’ 떠남이 있으면 반드시 돌아옴이 있다는 말처럼 나중에 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환갑 전에 돌아올 테니 받아 주십시오”였다.

여하튼 우리는 새로운 옆 지기를 맞아 언제 무슨 일이 있느냐 싶게 당당이들이 가슴으로 써서 보내주는 편지를 잘 배달해야지.

어떤 애청자는 자기는 내향적인데 진행자가 하도 바뀌니까 정말 힘들다고 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황수경, 김현숙, 김경아, 양희경 그리고 유민상, 양동근, 그분들 일상의 리듬을 흠어트리며 민폐를 끼쳐버린 셈이 되어서 송구스러웠다. 방송으로 중계할 수 없는 얘기를 이렇게라도 설명해 드리고 싶었다.

이게 무슨 난리인가 싶던 4월 마지막 주부터 5월 말까지 우리의 속사정은 이러했다. 이제는 흔들림 없이 흘러가자!



IBK 기업은행

쉬운 경영은 없지만 쉬운 배킹은 있습니다



기업에 담긴 당신의 진심을 알기에
60년간 축적된 데이터와 함께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더 나은 기업금융의 길을 걸어갑니다

IBK기업은행



고객별 맞춤으로 쉽게!

자산관리서비스, 알림 서비스 등
고객 유형별로 맞춰 편리한 이용



비대면으로 빠르게!

영업점 방문 없이도 대출, 외환 업무와
개인 및 법인 카드 발급까지 가능



자금통제로 안전하게!

다단계 결제, 다양하고 편리한 결제라인
아간/주말 이용시간을 안전하게 제어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3-0651호(2023.02.13) [유효기간 : 2024.02.12] · 금융상품 관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금융소비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문의는 거래 영업점 또는 IBK고객센터(☎1566-2566)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IBK기업은행은 금융·향응을 받지 않습니다.

윤리경영 위반 사실이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02-729-7490, e-mail : ibkethics@ibk.co.kr)



IBK기업은행

기업은행의 변화는 기업이 중심.

어려운 시기에 기업을 한다는 것

그 마음의 무게를 잘 알기에

기업운영에 더 큰 힘이 되기 위해

기업은행이 작은 것부터 바꿔 나가겠습니다



(조건 없이 전체 기업고객
기업뱅킹 이체 수수료 0원)